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제주어(語)공모전 수상 작품집

굴 톱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제주어(語)공모전 수상作品集
글 특

발행일 : 2019년 11월 일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064-726-9154

인터넷신문 제이누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
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064-748-3883

인 쇄 : 일신옵셋인쇄사

(비매품)

살아있는 언어로 제주어가 빛을 발할 날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제주의 말과 글을 찾습니다”라는 표어로 제주어 공모전을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전락해 가는 제주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처음 시작한 이 행사가 걸음마 단계를 지나 소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2013년 ‘제이누리’의 작은 이벤트로 시작된 이 공모전은 2017년부터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이누리’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전문성을 더하고 수상 내역을 확대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깃든 과거로부터 온 문화유산이며, 이를 갈고 닦아 미래 세대들에게 전승해야 하는 미래유산이기도 합니다. 미래로 전승하기 위해 우리들은 현재의 것을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사라져가는 소멸 위기의 현실을 타개하고 제주어를 제주의 숭고한 미래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매회 공모전에서 반짝이는 제주어 작품들을 기대하곤 합니다. 덕분에 해마다 많은 분들의 많은 추억과 사연에 가슴 찡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제주어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제주 도내외 제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다른 지역민들에게 ‘재미’와 ‘의미’는 물론 ‘흥미’까지 유발하여 제주어가 박제화된 언어가 아니라 살아 있는 언어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2019년 ‘제7회 아름다운 제주말·글 찾기-제주어공모전’에서 수상한 15편의 작품과 6회까지의 수상작 17편을 실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7년간의 공모전의 결과물로 제주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응모했던 모든 작품을 보여주지 못하여, 그동안 제주어 공모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제주어 찾기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사하는 살아있는 언어로 제주어가 빛을 발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19년 11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직무대리 **좌혜경**
제이누리 발행·편집인 **양성철**

차 례

제7회

• 대상작	굴퉁	강 봉 수 _ 06
• 최우수상	밤바르, 그 저슬의 바당	허 정 심 _ 08
• 우수상	뜰	김 미 화 _ 12
	어머 손콰이 나신더레	김 신 자 _ 16
	어스름 세벌	양 순 진 _ 18
• 장려상	거정청이 두령청이	강 봉 수 _ 20
	고향 삼촌과 대화	강 선 종 _ 22
	올랭이 두갸이의 하루	강 정 태 _ 26
	장돌이영 장순이	김 동 건 _ 30
	웨로운 섬	김 순 란 _ 32
	꺼	김 신 자 _ 34
	가심 소곱에 어머 콤은 뜰	김 정 미 _ 35
	공쟁이 걸어진 줄	문 성 희 _ 41
	설문대할망	윤 보 석 _ 42
	나냥 느냥	정 순 애 _ 44

제6회

• 대 상 작	“나 초등학교만 뎡겨나도 대통령 헤실 건디”.....	현 미 경 _ 48
• 최우수작	“동고량착”을 알암수와	김 상 수 _ 50

제5회

• 대 상 작	뎡~! 으름날 아이스케키쏘곱 행복	문 혜 속 _ 56
• 최우수작	곶자왓 이악	김 상 수 _ 59
• 최우수작	진풀왓디	김 선 진 _ 62

제 4 회

- 대 상 작 바당 엇어시민 어땡 살아시코이? 김 성 춘 _ 66
- 최우수작 두릴 적 신단 색동고무신 여악 문 혜 숙 _ 72
- 최우수작 헛다 느네랑 갈라사지 말라이! 고 효 숙 _ 74

제 3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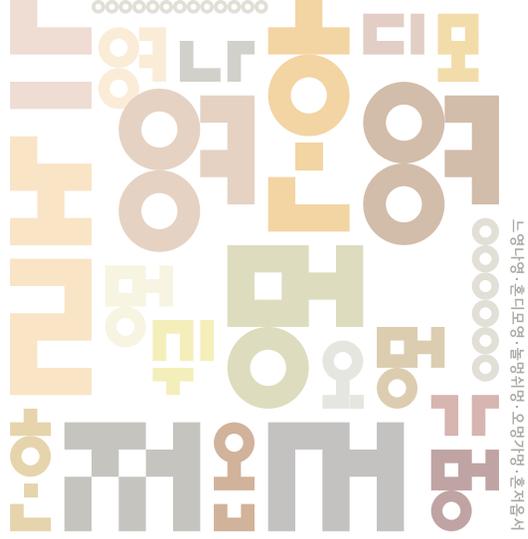
- 대 상 작 와흘 본향당의 기억 반 경 옥 _ 80
- 최우수작 직산도 말곡, 뉘드지도 말곡 강 봉 수 _ 83
- 최우수작 곶자왓 엉장 밋디 김 선 진 _ 86
- 최우수작 아기구덕 이 지 _ 88

제 2 회

- 대 상 작 무사 유관순이 돌맹일 맞어야 험니깡? 김 혜 정 _ 92
- 최우수작 제주에 문디글락허게 가근헌 방송허는 사름
허수경이가 곱아주는 이야기는? 양 필 수 _ 95

제 1 회

- 대 상 작 “대한항공 운임 올리난 헛썰 싡 항공도 문딱 다” 현 승 도 _ 98
- 최우수작 걸엉 제주도 헛바퀴를 ... ‘제주 올레 잇으멍 걷기’ ... 오 순 선 _ 101
- 최우수작 “밤에 고기 내 ㄱ득은 레포츠평원 ...
아침에는 쓰레기 내 풀풀” 오 현 수 _ 103



제 7 회



굴 툯

강봉수

아뻡 착흔 아이도 굴툯부릴 때 신다
알넉 집 셋거 착헝기로 동네사름 먼 알주
불 숨젠 흐민 곧기도 전이
눌 놀어 논 보리낭 두어 못씩
즈깁이에 쥼정 그져 오고
혹교 파흐민 지가 알앙
물항에 물도 그득 체와 두는 아이라

경 착흔 아이도
주둥아리 무룩헝게 굴툯부린다
배고픈 걸 춤질 못헝영
죄 엇인 부지깁이 닥닥 두드리곡
눌 어염에 등사듬서
느람지만 이레 거श्यक 저레 거श्यक
돛 통시 뉘야지 등착만 목둥이로 닥닥

심술

강봉수

아무리 착한 아이도 심술부릴 때 있다
아랫집 둘째 아들 착한 것은 동네사람 다 안다
불을 때려고 하면 말하기도 전에
가리 가려 놓은 보릿짚 두어 단씩
겨드랑이에 끼고 가져 오고
학교 과하면 자기가 알아서
물 항아리에 물도 가득 채워 두는 아이야

그렇게 착한 아이도
주둥아리를 내밀고 심술부린다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
죄 없는 부지깽이 탁탁 두드리고
가리 옆에 곧추 서서
이영만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돼지우리 돼지 등만 막대기로 탁탁

밤바르, 그 저슬의 바당

허정심

또아, 올히가 그물민 나가 60이 뉘느네. 경흐난산디 이 그슬이 제빨나게 가심 실립다게. ‘사는 게 뉘 산디’ 허는 생각도 들곡, 누게가 곱아신디 모르키 여만은 ‘어떤 어명은 50에 바당을 발견헛젠 허는디 난 뉘 헤신고?’ 허는 후회도 남져. 경해도 97년을 살아가는 니네 할망이, 나가 흐썰만 시무룩허여 보이민, ‘아명허민 못 사느냐? 즈름 붙이지 마랑 검질도 매곡 물질도 흐명 살암 시민 살아진다’ 허명 기십을 패와주느네. 경흐난 ‘이 나이에 어명이 살아 이신 것만도 복이 한 거주’ 허명 기영저영 살아감시네.

오늘은 무사산디 나가 살아 온 질을 자꾸 뉘돌아 봐점져. 미신 벨나게 베지 그랑헌 일은 엇이난 놈 비치릅다만은, ‘가슴이 뜨뜻헌 이예기’라도 훗아 보구 정 헌 생각이 들언 이 글을 씬져. 특별헌 이유 엇이 을큰허곡 뉘라진 거 닥곡, 몰명지게 생각될 때랑 솔째기 꺼네영 흐 번 읽어보라 이! 제목은 ‘밤바르, 그 저슬의 바당’이렌 붙여봤져.

밤바르 헤영 온 물건을 푸는 일은 잡는 일보단 아명해도 쉬운 일일 거우다. 이제 왕 또시 생각허여 봐도 깡깡 언 저슬밤이 바당에 강 구제기, 해섬, 물꾸력, 바릇을 잡는 건, 잘도 모습곡 버친 일이우다게. 경헌디도 난 어명이영 곱

이 잡아온 그 물건을 구덕에 짚어 지영 이문간을 나설 적에, 온 몸이영 가심이 더 보짝 오그라들었다. 어명이 정해준 디 강 물건을 내주곡 졸바로 깎만 받았 오민 되는 일인디 마썸. 스실은 가는 질에 곱은 반 스나이털이라도 만나지카부덴 소굽으로 하영 저들아집디다게.

난 양, 그때 막 사춘기에 접어들언, 흐썰헌 일에도 양지가 막 복닥허곡 가슴이 방맹이질 허는 지집아이여수게. 중문이레 올라강 신작로를 땡길 땐, 야 개기를 폭 수그령 걷는 성의 독지가 흐엇이 뻗 거 님양, 나 가슴 흐짜이 막 알립디다게.

밤바르 구덕을 등땡이에 지영 켈로 먼저 들르는 덴 천제여관이라났수다. 중혹생인 성은 대문 바깥디 상 이시곡, 아시인 나가 구덕을 저깡이에 끼왕 쾅쾅 대명 정제로 들어잡니께. 여관집 아지망은 얼굴이 벨허게 희곡 몸피가 ㄴ는ㄴ는 헌 사름이엇수다. 어디가 하영 아픈ㄴ라, 배랑 웃지를 안허곡 말도 잘 엇인 거라예. 경 안해도 바당에서 그냥 봉근 물건을 풀레 가는 입장이 난 그 집 앞이만 가민 주왱주왱헤집니께. 중문면에서 켈로 유명한 여관집이 난 이문간이 어떻사 빈지르르헌지 기가 땡썸 죽어져예. 경해도 어떻헉니까. 겉으론 아무추록도 안 헌 양 모직허게 구덕을 정제 무똥이에 내려놓니께. 경 흐민 그 아지망은 슬째기 나왕 물건덜을 촛촛이 슬퍼보주마썸. 엔간허민 해섬이영 구제기영 잘 사주젠 허곡, ‘개무로사 이 두린 아이를 빈 손에 돌려보 내영 뉘카’ 허는 ㄴ슴으로 흐썰씩이라도 사주곡 헉디다. 경 흐난 이거여 저 거여 존소릴 흐거나 깎을 까끄는 법이 엇어마썸. 어떻허당 물건을 베리기만 헉 때도 이신디, 경 헉 땐 ‘요센 손님이 배랑 엇언 이...’ 허명 막 미안헌 양지를 헉니다.

성이영 나 스이엔 암호가 흐나 이서신디예, 여관을 나올 때, 구덕을 노단 짝에 들민 장시에 성공헌 거고, 웬짝에 들민 실패헌 거라마썸. 장시에 실패헌 날은 천제여관을 지낭 천제연 폭포 저궂디 식당을 땡 군디 더 돌아댁겨사 헉니께. 어떻허당 머정이 영 엇인 날엔 버스를 탕 서귀포ㄴ지 강 원정행상을 별

림도 헛수다.

잘 모른 서귀포 매일시장 한가운데 앗앙 오가는 사름덜 온정에 기대영 물건을 푸는 일은, 기약 엇인 지드림이우다. 경해도 우린 김연대 시인이 ‘상인 일기’에서 곤 거추룩, 말축 임당이에 안장이라도 전(塵)은 펼쳐사 허는 입장이엿수게. 손님이 엇이민 배롱배롱헌 벨이라도 세곡, 헛다 못헤영 구구단이 라도 웨와사 허는 운뎡이렌 흐카양. 흐건 폴아보젠 물건을 등에 정 집집이 돌아당기명 애써도 저녁 때가 돼어사 제우 집더레 와질 때도 이서마썸. 아픈 정갱이나 고평 배보단 비치루완 벌경헤진 성의 얼굴을 베려보는 게 더 전디기 어려운 설름입디다.

그 고리엔 무사 경 눈도 하영 와신고예? 그날도 밤새 느린 눈으로 질이 뵈허게 민질락 민질락 헛디다게. 경흐디 천제여관은 영덕배기 비크레기에 이서부난, 우린 설설 기명 뎡심뎡심 올라가사 헤연마썸. 기영저영 여관 앞이 다드르난 성한티 구덕을 도렌 해수게. 생각보단 잘도 뵈디다게. 경해도 아무추룩 안헌 거곶이 그걸 어이싸 들어올런 가심에 브짜 붙영 안아수게. 요망지게 벤조롱흔 이문간을 넘어서젠 허는디, 아고게, 가달이 문턱에 걸려신 ㄱ라, 오꼴이 푸더져부런양. 구덕은 허천디레 놀아강 들러싸져불고, 그때까지 살아 이서신 ㄱ라 물꾸러이 돌아나보젠 가달을 움직거리곡, 몽클락헌 해섬덜은 지네만씩 오몽허명 마당을 둥그는 거 아니짜. 재게 그것들을 주서보젠 어그라 일어사신디, 종애가 왓씩 허는 거라예. 어떻 해 볼 도리 엇이 앞더레 푸더지난, 나도 모르게 ‘아고 어멍아’ 허명 웨올러져 불언양. 그 소리에 노랜 주인 아지망이 ‘이거 무신 일인고?’ 허는 양지로 마당더레 화다닥 들러웁디다게. 난양 미신 칭원헌 일이 이신 사름추룩 그자 막 울어불엇수게. 나도 몰르는 통곡의 이유를 아는 거추룩 아지망은 그랑그랑흔 눈으로 날 덤석 콤에 안앙 야개기를 그닥거립디다게.

“울지 말라, 아기야. 헛다 걱정흐지 말라이. 오늘은 저것덜을 나가 문딱 사

주마. 고리 좋게 오늘밤이 우리 집 아방 식젯날이여. 눈 때문에 출레 걱정을 해신디, 느 덕분에 외려 진수성찬을 출리게 뉘엇저.”

이추룩 아지망이 달래는 소릴 들으난, 절로 울음이 딱 그쳐집디다게. 속이 역은 아이추룩 땅바닥에 가리각산 뻘어진 물건들을 문딱 사준텐 헤영이 아니우다. 그 아지망의 피렁한 얼굴이, 아, 그 애쫘은 설름이 숨끈어지게 목구멍을 짓눌러 불언이우다. 그 곱닥헌 아지망이 홀어멍인 줄을 꿈에나 생각해 봐수광? 그걸 몰른 나가 뚜럼 닳음도 허곡, 미안헌 생각도 막 듬디다게. 나 슬픔보다 늑아픔을 더 크게 생각허는 딱뜻헌 쿨 안에서 난양 어느새 어른이 뉘어 불언마썸.

이제도 흐끔 사는 게 버치곡 힘들민, 딱뜻 허던 그 저슬의 온정이 생각나곡 험니께. 곱닥헌 서늑으로 빙섹이 우스멍, “아기야! 관차녀다. 나가 다 사주마 이!” 허던 그 양지의 미소가 떠오름주마썸. 이제는 하늘 저짜 어디산디서 아방이영 곶이 행복허게 살암실 거우다. 아니민 ‘호다 경 살게 해줍서’ 허는 기도를 험수께.

배고프곡 가난 허던 두린 때 이예기가 내 가심 속의 자리를 이추룩 크게 차지허는 건, 가심이 딱뜻 사름들이 더 기려운 세상이기 따문입주. 이 좋은 사름들이영 세상을 곶이 살아가당 보민, 가난도 힘이 되곡 아픔도 꿈이 뉘 거우다.

경 허난 뉘아, 니영 나영도 가심이 딱뜻헌 사름으로 살아가게이. 어떤 어멍이 바당을 발견헛젠 허는 소린, ‘사는 게 뉘산디’를 깨우쳐시난, 이제부터 걸어가사 혈 질을 좇앗텐 허는 말 아니냐. 허다 ‘짜는 물 이시민 드는 물 이신다’는 제주도 해너 어멍들의 말썸을 멍심 허영, ‘살암시민 살아진다’는 제주 예즈로 무지직허게 살아가라이!

딸

김미화

딸은 맨날 나신디 실망을 주어마씀.
어떤 놀은 막 부에도 나게 흡니다.

요자기엔 나신디 용흔 문자렌 흔 거 와십디다.
'딸이 아픈 건 생각도 안 햏명 이녁 옷 살 거만 걱정햏텐'
그 이윤양 나가 인터넷이엿 햏 디서 옷을 사쟈 햏단 컴퓨터에 눈튼 봉스라
부난 결제가 잘 뉘지 안햏연 딸신디 햏꿈 부탁햏지 안햏여수과,
순간 햏쓸 두령청이 눈만 큰큰햏여젓주마는 오닐 즈르진 일이 싯젠 곱앗
주마씀.

경햏 딸을 뉘레보멍 나도 뉘레봐집디다.
어멍신디 난 어멍햏 딸인지.
ㅁㅈ이로 태어난 햏꿈은 어멍신디 지뵤도 뉘엇주마는 경햏지 못햏 때가
더 한 거 닳읍디다. 지금 어멍은 85술마씀. 요햏루기 새백이 일어나단 씨러
전 고관절 수술햏연 요새 재활 중이우다. 어멍은 일곱 오누일 두엇주마는 제
주에 사는 딸은 나베끼 엿수다. 출렐 햏영 어멍집 ㄱ장 가는 일이 경 습지만

은 안ㅎ여마씀

딸이 클 땐양 욕심이 춤 하낫수다. 맨날 ‘어멍 기림 배우커라, 과학 흑원 땡기커라, 피아노……’. 배웁젠 ㅎ는 욕심이 하늘을 찢릿수다. 딸은 배웁는 것덜을 질루 잘 ㅎ였고 상장덜토 타오멍 아방이영 나신디 지뽀도 주엇수다.

나도 초등흑교 스시에 나영 심백ㅎ단 벗이 주산 흑원엘 땡겨서 어멍을 막 졸루안 여름 방ㅎ 스시에 땡겼수다. 버스를 탕 시골서 시(제주시)로 오는 질은 나신디 큰 지뽀를 주엇수다. 동문 시장이서 사 먹은 냉멘 맛은 벨 시상에서 느끼는 기분과도 끝앗고 이제도 그 맛을 잇을 수가 엇수다.

딸은 여고 스시에 흑교에서 공빌 ㅎ단 ㅎ쓸 짜증이 나는 놀은 나신디 문자영 ㅎ걸 보냅니다

‘어멍, 아과. 빙원 돌아다 줍서.’

경ㅎ민 ㅎ는 수 엇이 딸 부탁이라 노난 어멍ㅎ니까, 들어줘사주. ㅎ쓸 자유가 이신 직장에 땡견 들레 갈 순 이섯주마는 경 쉬운 발걸음은 아니엇수다. 대ㅎ 스시도 매ㅎ 가지라마씀, 느랑 공일에 즈격증 시험이영ㅎ 거 이션 ‘어멍 태와다 줍서, 들레 읍서’ 느랑 딸이 오렝 ㅎ는 디로 가렝 ㅎ는 디로 가는 수트렝ㅎ 어멍이엇수다.

나도 여고 스시에 대문 앞이 저슬에 쓸 소냥이 하영 이신 놀은 집터레 들어오당도 발걸음을 뒤로 ㅎ영땡 디로 가는 놀이 하낫수다. 또시 아시덜이 하부난 설거지멍 청소멍 다 아시신디 멧기고 난 꺄꺄로 빠지곡 ㅎ엇수다.

딸도 집이션 설거지광 청소광 무사ㅎ니까. 별기 지나 안 ㅎ염시민 ㅎ는 놀이 핫수다. 경ㅎ명도 부에는 무사 냄신디사 ㄱ 난 때도양 무신 것이 모자라신디 맨날 왕왕 작작 웨울러 노난 밤이도 잘 수가 이서수과? 경ㅎ연 우리 서방이 쓰레기 차에 싯거불켄 ㄱ장 곱아낫수다. 경ㅎ연 믇을서 거느리왕상 ㅎ

는 울보라났수다.

나도 흑교 땡길 땡 어멍이 차비로 준 돈을 똑기 잊어불곡 또시 돌아완 어 멍신디 ‘돈 잊어부런’ 흑멍 또시 타기도 흑곡 츠마가라 고등흑교 땡길 스시엔 월사금을 잊어불언내지 못흔 때도 이서났수다.

요새 딸은 26술, 서울서 밥이나 먹어지는 직장엘 땡점수다. 월급에 흑꿈을 나가 적금을 들젠 돈을 흑쉴 보내렌 흑난 체암 두서넉 들은 보낸게마는 그루 후젠 보내지 안흑되데다. 무사 안 보냄시니 곱으난 이녁이 알앙흑쿠다 흑는 거라마썸. 우리 딸은 아땡흑여도 뽕쟁이 닳수다.

나도 어멍신디 뽕쟁이인가. 흑는 생각이 들어집디다. 요흑루기 아시가 휴 가영 흔 거 반안 어멍신디 완 부름썰 흑염수다. 경흑난 나가 흑쉴 펜안 흑여 전마썸.

땡날 심이 엇인 어멍.

점점 두린 애기가 땡어가는 어멍을 땡려봤수다.

젊어실 땡 서방을 먼저 보내된 일곱 오누일 키우멍 이레 화륙 저레 화륙 흑멍 살단 이제 즈석덜 문딱 시집 장계 보내곡 손지 웃음이나 보멍 펜안흑 게 살 때가 땡신디 그만 빙을 얻언 걸음도 흑차 견도 못흑는 어멍을 땡려봤 수다.

딸이 곱닥흔 양지가 보였수다. 더운 날썰에 일흑멍 심들지 안흑염신가? 밥 은 어멍 먹엄신가?.....

두렁청이 딸상에 칭원흑옛단 므음이 엇어졌수다.

어멍 양지도 떠올려 봤수다. 수심이 그득흔.....

즈꼴디 살앓주마는 나 삶이 지치땡흔 핑계로 땡날 어멍신디 가진 못흑였주

마는 믿음은 늘 어명을 꿰뚫었다.

바닷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장통 밧디 물 곁에는 날쌔라 축축하지만 믿음만은 빈적빈적하게 지내고정
혔다.

오늘도 어명이 좋아하는 출렁 멩글멍 밧걸음은 어명신디로 향했었다.

어멍 손콥이 나신더레

김신자

어멍 손콥 꺾암저
어멍이 혁 파멍 질룬 거
그자 헤심상헝게
토각토각 꺾는디
혁 묻은 어멍 손콥이
나 양지 두드렷저

느영나영 곱은 신세여
어멍 몸 테어져 나완
시상 뱅뱅 둥글멍
이레저레 젓어텡겨도
하늘에 똑기 못 부뜨는
구름 닳은 팔즈여
는 무사 몰른 책 흐단
날 꺾안 테꺾시니

이제만이 살단 보난
어명을 알았았구나
영 살당 어명 죽으민
느시 고아 뵈 거난 이?

손콍이 곤는 말 듣단
나 소콍도 맞텐 곤단
오꼳, 새끼 손고락
술 건드려져 불엇저
아고계, 이 노릇이여
헐리난 피 찰찰 흘렸저게

아, 우리 어명 소콍
영흔 섯백이랏구나
아흔 다섯 정성이
영 살안 신 거구나
마즈막 새끼 손콍이
나 콍더레 놀려든다

어스름 새벨

양순진

헤 즈문 서펜 하늘에
빈찍이는 벨이 잇이민
건 똑기 어스름새벨 일 겨우다

새백이 동펜 하늘 새벨
뉘지 못헿
들으멍 들으멍
즈낙 하늘에 미쳐오라실 겨우다

즈낙 그리
배고픈 강생이덜신디
갓 주고정 헿연
사발이 되실 겨우다

헤 즈문 서펜 하늘에
번지는 빗 잇이민
질 일러분 사름덜신디
나침관 뉘어주젠 헿
어스름새벨 므음일 겨우다

개밥바라기

양 순 진

해 저문 뒤 서쪽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다면
그건 분명 개밥바라기 일 거예요.

새벽에 동쪽 하늘 셋별
되지 못해
달리고 달려
저녁 하늘에 도착했을 거예요.

저녁 무렵
배고픈 강아지들에게
밥 주고 싶어
그릇이 되었을 거예요.

해 진 뒤 서쪽하늘로
번지는 빛이 있다면
길 잃은 사람들에게
나침반 되어주려는
개밥바라기 마음일 거예요.

거정청이 두렁청이

강봉수

퍼렁한 하늘도 두렁청 흔 날 신다
오늘은 날래 널어도 좋을 날이어
명석 ㄱ쿨이 털엉 조코고리
널어노난
벧도 과랑과랑 브롬도 건드렁

삼방에 걸러지난 눈깜지가 껌실껌실
꺨빡흔 즈르에
모커리 폭낭 알에 순택이가 이레
오렌 손짓흐네
멧날 메칠 순택이칩 올래에 사듭서
지들릴 적엔
물베락을 흐던 아이가
오늘은 거정청이 손짓을 흐네

이제사 내 ㅁ슴을 알암싱가
가심이 느룻흐영 푸더지멍 들러가난
빙세기 날 뵈리멍 낭 강알에 숨져둔
물박세기를 와작작 빼어간다

가심이 느착흐영 눈을 텅 보니
날래 넌 조코고리가 둥갈둥갈
명 감싱게

아이가이고 우리 어멍 쿠사리가
한락산이켜
아이가이고 아방신디 매 복씩이어
하늘은 무사 두렁청 흠광
순택인 거정청이 나사신고
농부아니칩 든즙은 나 복이 아니주

지난 일이 든즙인줄 이제사
알아지켜
옛날 생각에 빙삭빙삭 웃당 보난
거정청이 두렁청이 순택이가 웨여간다
날래 넓디강

난데없이 갑작스레

강 봉 수

파란 하늘도 갑작스런 날이 있다
오늘은 곡식을 말려도 좋을 날씨네
명석을 깨끗이 털어 조 이삭을 넣어
놓으니
별도 눈부시게 잘 들고 바람도 건들

마루에 드러누우니 눈까풀이
가물가물
깜빡한 사이에 길목 팽나무 밑에
순덕이가 이리 오라 손짓하네
몇날 며칠 순덕이집 골목에 서서
기다릴 때는
물벼락을 주던 아이가
오늘은 난데없이 살갑게 손짓을 하네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나
가슴이 싹 풀려 넘어지면서 달려가
노라니
방긋 웃으며 날 보며 나무 밑에
숨겨둔 바가지를 확 뒤집어 씌운다

가슴이 무너지듯 깜짝 놀라 눈을 떠
보니
말리던 조 이삭이 뚱뚱 물에 떠내려
가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우리 엄마 잔소리가 한라산이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버지 매질이 심하겠네
하늘은 어찌하여 갑작스러운지
순덕이는 난데없이 나셨나
농사꾼 집 살며 단잠은 내가 누릴
복이 아니구나

지난 추억이 단잠인줄 이제야 알겠네
옛날 생각에 배시시 웃다가 보니
난데없이 갑작스레 순덕이 목청 크게
외치는구나
곡식 널었나요

고향 삼촌과 대화

강 선 종

제주도의 산골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요즘말로 ‘흙수저’ 인생입니다. 나는 농촌생활의 가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오늘의 각박한 세상과는 달리 그래도 그때는 이웃과 서로 보살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내 삼촌이고 내 조카였기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옛날의 향수에 빠져들어 구수한 제주어로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삼촌)

“아이고 우리 조케 이게 얼마만고. 느 두린 때 봐난냥 흐 삼사십년은 웬 것 답다. 이리 왕으네 즈꼴디 앓아보라. 나 옛날 말 흐케매 들어보라.

느네 아방 어명은 스테를 겪으면서 먹을 것이 즈르바로 었은 때 살엇저. 그뻐ن 무사 경 어려와신디 배고팡 뱃가죽이 등뻥이에 들라붙어도 먹을 것이 었영 오죽 고생덜 흐여시냐.”

(나)

“나도 알ampus. 그뻐ن 너나 었이 모두 어려워신테주마는 우리 부모님, 우

리 백영 살리젠 흐명 오죽이나 힘들게 살아 온 거 무사 모르쿠과.”

(삼촌)

“경혀도 는 나만큼은 모를 거여. 그땐 양석이라곤 보리밥에 된장국이고
출 래는 김치하고 마농지 뿐 아니가? 요즘 시절 ㄹㅍ이 냉장고가 어디시니?
삭삭 더운날 보리밥 가냥 잘못혀영 쉬어불민 쉰다리 만들영 떡곡, 보리 볶양
ㄹ래 곶아당 개역 만들영 먹었저. 좀 덜 쉰 밥은 개역에 버무령도 떡곡, 더운
날 물에 즈양 흔 사발 드리키믄 그것 보단 맛존 거 어섯저.”

(나)

“삼촌 말 듣단 보난 옛날 생각 하여 남신게 마씨.”

(삼촌)

“느네 두릴 때 아이털은 멥질날과 식겻날을 무사 경 손가락 구부려 가명
세명 기다리는지? 멥질날과 식겻날 곤밥에 돛궤기 적갈 흔 점 주믄 니치름
홀리명 와령 먹는지? 경혀믄 배설이 놀라부는지 모르켜마는 설사로 홀터부
령 안 백임만도 못흔 때가 많았저.”

(나)

“삼촌! 경 혀여도 그때가 좋지 안혀엿수과. 사람들이 순수혀엿수게. 요보
록 소보록 준피 부리는 사름 엿엇고, 스도리혀명 꾹 가르지 안혀고 늬이 말
도스릴 때도 안 흔 말까지 붙여가명 싸움질혀게 멥글지 아니혀엿수다. 늬 속
일 줄 모르고 이녁만씩 부지런히 살아십쥬. 우영бат딘 송키 싱그곡, 우жат딘
뜸비 올리곡, 집 어염엔 양에 심영 양에순은 복쟁이 고기에 볶양먹고, 양에간
은 솥양 무청 반찬으로 떡곡, 웬장에 부루영, 콩잎에 뽕젓, 꾹고치에 마농지
만 이시믄 밥 잘 먹어신디, 요즈음 아이털은 귀천 엿이 자라나부난 세상 물정
모르고, 분쉬 엿이 커부난 먹을 것 귀흔 줄 모르는 게 문제 아니우과?”

(삼촌)

“조케도 잘 알암싱게. 조케말이 맞다. 그땐 보리밥 흔 낭푼 떠냥 식구들이

몽땅 들러들엉 떡당 보민 어른이 서너 적 먹기도 전에 낭푼이 굵이 보이고, 지 새끼들 혼 직이라도 더 맥영 키우젠, 어망 아방은 배 부른 체 혼명 먹던 솟갈 노른, 분쉬 모른 혼것들은 밥 그릇에 그릇 그서가명 혼썰이라도 하영 먹젠 드투어가명 살던 시절 아니가. 조케도 튼나점시냐? 시방 ㄱㅌ이 출 래영 맞존 궤기 반찬이영 엇이도 밥만 배 혼 먹어지믄 원진 게 엇엇저.”

(나)

“삼촌! 나도 널 모리 칠십 아니우파. ㄱㅌ이 늙엄신디 삼촌네 겪은 일 무사 모르쿠과? 나 어령 혼꼬만 흘 때 혼교 다닐 때 어명 현 줄 알암수과? 공부 혼젠 혼믄 작구장 살 돈이 엇영 복숭개씨도 주서당 깡은에 봉지에 담양 풀곡, 살마도 케영 풀곡, 인동꽃도 탕 물리왕 풀곡, 지냉이도 잡양 판데기에 못 박양 물리왕 풀곡 혼명 혼썰이라도 돈 모아지믄 책도 상 보명 공부헛수다. 저녁이 되면 시상이 왁왁혼여도 배롱한 각짓불 앞에 앓양 눈 부비명 책을 보던 그 때가 그리워점수다.

나 삼촌한테 죄 지은 일, 하나 이신디 이제사 곱으쿠다. 나 초등혼교 2학년 땐가 하도 배가 고파부난 늙이 밤시키부덴 우리 아시한테 망보렌 혼연 삼촌네 감저 밭에서 감저 파다 먹은 늙이 나우다.

그 시절 고행 안 혼영 늙광 트나게 산 사람 이신가 마씨? 와랑와랑혼 불벧에 나앗양 조팍 검질 매여야 헛고, 므쉬 키우젠 혼믄 출 비레 다녀야 헛고, 쟁기로 밭 갈고, 집 일젠 세(띠) 비어 와야 돼지 안 혼엿수과. 혼꿈이라도 놀러 다닐 트명이 엇엇수다. 혼썰 애껴 살젠 혼믄 보리냥은 놀 놀엇당 지들커 혼곡, ㄱ스락은 굴묵에 담앗당 돌똥 주서당 섞영 굴묵 진어사 구들이 맨드롱 딱똥해정 저슬을 넘길 수 잇지 아니혼엿수과. 한 저슬에 일이 엇일 땐 산디 짚으로 멍석 만들곡, 맥이영 망태기영 만들어 뒤사 곡석도 널곡, 하간 곡석담양 놔두기도 헛잖수과.”

(삼촌)

“조케 말이 맞긴 혼디, 내가 살아 온 시상을 생각혼믄 그 시절 사름들이 궁

통이가 나지 안 ㅎ연산디 고생만 진탕 ㅎ명 살았으니 칭원ㅎ고 을큰ㅎ ㅎ슴
 뿐이여. 날 보라. 이게 사람 서능가? 양지엔 벅에 그슬렁 거므특특 푼리침이
 ㄱ특ㅎ곡 야게기는 빨아먹은 볼래 주쉬마냥 ㄱ놀아 붙어시네. 시방 나이 들
 언 늙어사 영 좋은 시상을 만나부난 종에도 씹빡ㅎ고 오금이 쭈시고 하간디
 아파부난 ㅎ고 싶은 거 ㅎ심냥 못ㅎ영 사는 것이 워낙 칭원ㅎ연 말해점저.
 이게 다 젊은 때 ㅎ근 살아보젠 ㅎ둥이가 데와지도록 일ㅎ여부난 생긴 빙이
 주. 나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멍 ㅎ앙 살앙 시방까지 이만큼이라도
 재산을 모양 살아와신디, 아이털은 막살이 하나 쪼끌락ㅎ연 ㅎ ㅎ랭이 ㅎ관이
 라도 이시대겨 불젠 ㅎ 때마다 추물락ㅎ연 영 ㅎ슴이 편치 못ㅎ게.”

(나)

“삼촌! 무슨 말을 경 곱암수과. ㅎ ㅎ랭이 풀켄 ㅎ 말에 경 금착ㅎ른 ㅎ꺾
 과? 삼촌이 살아 온 시상은 몽땅 지나갓수게. 시상이 바뀌지민 사는 방법도
 바뀌야 ㅎ비니께. 아이털은 요즘 시상을 살아야 험니께. ㅎ ㅎ랭이 풀앙 사
 업 밑천 ㅎ켄 ㅎ거들랑 막지 말앙 그걸 밑알로 벌어 보렌 ㅎ꺾 밑어줍서. 아
 이털 ㅎ름 밑어 줄 사름 어멍 아방 말앙 누게 잇수과? 아이털 기십 죽게 ㅎ지
 말앙 잘 살게 멩글어사 삼촌도 ㅎ들지 아니ㅎ영 ㅎ심냥 오래 살아집니께. ㅎ
 ㅎ랭이 ㅎ나 풀아불엇텐 ㅎ착ㅎ른 몸만 상합니께. 아이털이 잘살게 ㅎ믄 이
 녁 어멍 아방 모른 체 안 ㅎ 테주마는, 경 ㅎ여도 문딱 주지말앙 삼촌네 늙어
 가멍 개용 쓸 걸랑 ㅎ꿈 냉겨듭서. 난 우리 부모님이 고생허멍 잘 단도리 허
 연 ㅎ두난 그 덕분에 이 만큼이라도 살암수게”」

고향 삼촌하고 대화에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년 전, 천봉의 슬픔을 겪은 나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ㅎ쫄이라도 잘 허
 여 드릴 걸 허는 회한이 밀려와 ㅎ슴 속이 천근만근 배어 왓수다’

울렝이 두갓이의 하루

강정태





독집에 올랭이 두갇이가 산다. 다정훈 두갇이다.

요스시 올랭이 남펜은 홍상 아내 먼저 맥인다. 척 베려도 베고픈 것 ㄴ튼 데 꼭 चु는 거 답다.

“닉 강제기 무사?”

내가 물어 봐신디 대답이 었다.



우리 어머님이 말해주난 알았다. 올랭이가 알을 낳았다고 한다. 득집 혼 귀 예기 대낭을 싱근 곳이다. 대결롱 세영 보난 스무남은 것 ㄱ트다. 혼제서 하 영도 낳았다.

“나는 애기 둘도 심든디, 경 하영 낳앙 어떻허젠.”

나도 몰르게 혼숨이 나왔다.

올랭이 두갯이는 굴하우스 들벙이를 심젠 들려왔다. 굴 농스 지을 때 들벙 이 이시민 즈들아진다. 혼번만 쏘여도 굴을 브려야 허난. 올랭이는 돌벙이를 잘도 잡앙 먹는다. 굴이 엇인 계절에는 안쓰러워 득집에 옮겼다.

득집은 올랭이 두갯이에게 심든 시상인 줄 미처 몰랐다. 득은 뜨난 짐생에 게는 심을 모아 못뉘게 군다. 메칠 전에는 남펜 올랭이가 암퇘 여러 머리와 싸왔다. 것 따문 득톤 모양이다. 내중에는 남펜올랭이가 총뎡이 빠지게 돌아 나고 암퇘은 기세등등 쫓아갔다. 구경 허던 나도, 득도 놀랬다.



독 것을 주젠 독집에 들어가신디 올랭이 두갓이가 나를 바레 본다. 독에 게 것을 주고, 올랭이 것을 딱로 쥐신디 독이 담아졌다. 올랭이 남펜은 어떻 흘지 몰라 흐며 ㄴ만히 이신디, 아내 올랭이는 겹도 엇이 독과 ㄴ치 것을 먹는다. 드투기 전에는, 남펜 올랭이는 아내 올랭이 것을 먹이젠 독을 쫓아냈 었다.



올랭이 두갓이는 흥상 ㄴ치 텅긴다. 독집 시상에서 꾹꾹하게 잘즌던다. ㄴ치 지네며 심을 낸다. 올랭이 두갓이는 알을 낳았다. 아쭈 하영. 두갓이를 축 엇이 닳은 애기 올랭이가 흐꿈만 지드리면 시상에 나온다.<꽃>

장돌이영 장순이

삼화초등학교 1학년 김동건

어명이 장수풍뎡이 두 마리 산 왔다.

암킨 장순이영 하곡 수컷은 장돌이영 일름을 지와주었다.

장돌인 도세기추룩 밥을 너미 하영 먹곡 장순인 비끄러운디사 자꾸 하 소곱더레만 곱쟁한다. 일로부면 장돌이영 장순일 잘 질루와사 하 켜 생각하 였다.

장돌이영 장순이가 우리영 하디 산 디가 스무날쯤 뉘 어느 날, 장돌이영 장순이신디 먹을 걸 주는데 무시것산디 쓸방울곧이 하 쫄락하곡 헤영하 게 뵈려졌다.

경하연 어명신디,

“어무니, 이거 뭐우짜?”

“게메이, 혹시간이나 장돌이광 장순이 알 아닌가이?”

어명은 휴대폰으로 ‘장수풍뎡이 알’을 찾아받게마는

“야네털아, 이거 장수풍뎡이 알 맞다!”

경흔디 좇좇이 보난 장수풍뎡이 알이 흐나가 아니란 시 개나 더 잇엇다. 난 너미 지꺼젓다. 재기 알이 새끼버렁이가 뉘어시민 좋키어. 경흐고 새끼버렁이에서 나왕 어른 장수풍뎡이가 뉘어시민 좋키어. 누이광 난 블써라 일름도 지와놓앗다. 수컷이 나오민 ‘장군이’, 암컷이 나오민 ‘장미’엿 홀 걸로 흐엿다.

“새끼 버렁이야, 재기재기 쓱쓱 커그네 만나게이.”

쉴쉴한 섬

정일근

우리는 서로 보지 못했는지 모른다

서로 바라보고 있다 믿었던 옛날에도
나는 그대 뒤편의 물을
그대는 내 뒤편의 먼 바다를
아득히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섬이다
그대는 아직 내릴 곳을 찾지 못해 떠도는
저녁 바다 갈매기다

우리는 아직 서로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내 밤은 오고 모두 아프게 사무칠 것이다

웨로운 섬

김순환 대역

느와 나 어드레 브렘신디사

잇날에도 그자 브려 브암거니 헛주만은
난 이녁 뒤깁이 오름을
이녁은 나 조롬이 바당을
아뜩하게 브려만 브암신지도 몰르켜

난 누게도 좇안오지 안 혀는 섬이곡
이녁은 안적 느릴 디를 좇지 못혀영 젓어 멩기는
즈낙 바당 꿀메기라

이녁이나 나나 그자 므음 베리싸질 못혀연

즈물어가는 이 밤도 아프게 스무친 므음 어멩혀리

꺼

김신자

우산을 펴쳐 들민
손잡이에 묻어나는
누게 꺼, 누게 꺼로 재미윽헤진 일름덜
뜰 아덜 떼여정 산 날부떠
비만 오민 남는 글제

‘꺼’라는 일름 안에 언니의 안부도 싯다
거제도 출가물질 뺏소곱에 브름 들민
당산봉 오름 능선도
우산이 뒤는 거주

아부지는 거기 잇어, 은제나 거기 잇어
식구덜은 떼여져도 우산술은 남앗다
숫가락 젓가락 스이, 녹도 반쯤 먹는 스이

가심 소꿉에 어경 쿨은 딸

김정리

“애깃배 맞추와 오기 시작은 흐염수다만 애기가 나오징 흐민 안직 멀어서 난 집이 갓당 하영 아파가민 또시 읍서양,”

“게민 어느만이 아파가민 오코양?”

“하닐이 느리농혀여 가명 벨이 꺾꺾하게 뵈려질 만이 아파 와가민 뵈완더레 오민 뵈 톱주마썸.”

쳇 애기 나올 흐은 넘어가고 동새백이부떠 배가 슬슬 아파 와가난 뵈완더레 들려가신디 너미 인척생이 왓덴 흐명 간호스신디 흐소틸 들언 흘 수 웃이 집더레 돌아왔수다.

집 구들이서 밤새낭 둥글명 벨 베려질 때만 지둘리단 아척이 뵈사 뵈완더레 가신디양 간호스 선싱이 날 베려지난

“밤새낭 뵈완더레 안 오난 집에서 애기 나분 중 알앗수다게, 이젠 애기 재게 나오게하는 주사 놀 겨우다양.”

경흐명 날 침대터레 누우렌 곱안게만 그때부떠 나광 배소굽이 신 애기영은 운명을 건 시간 소꿉더레 폭하게 빠지기 시작흐엿수다.

아싯날부떠 뒷날 아척꺾장 애깃배 맞추노렌 아무것도 먹덜 못혀노난 심을 주렌혀도 심이 나오덜 안 흐곡 난 츳츳 눈 틀 심도 웃곡 말 ㄱ를 심도

웃어져 붓디다. 정심 시간이 돼어가난 그제사 의스 선싱이 완게만 애기가 나 올 혼이 뉘실 거렌 흐명 진찰을 흐디디다게.

경흐디 나 배 소곱이서 탕탕하게 들어지단 애기 숨통 소리가 먼먼흐 디서 나는 소리추룩 게미용하게 들어지명 말명 흐여가군데 의스 선싱이 화르탁흐 명 나신더레 웨제깁디다.

“애기어명, 정신 줄 놔볼지 말앙 숨 짚게 짚게 잘 쉽서양! 애기 숨통 소리가 끈차지젠 흐염수다게, 영흐당 송시남네다양!”

의스 선싱이 급제기 나 코광 주뎡이 바우 우터레 산소입마젤 탁하게 체와 낫 산소를 들구 맥여데기명 곤는 말엔 나 꿋고냥이 확하게 터집디다게.

“애기어명이 심을 못 쥐노난 송시나기 전이 애기 빠내는 기계라도 써근애길 확 내우쿠다양, 경흐당 안뉘민 배 훔아사 뉘 거난 믋음 든든이 떡곡 어명은 쉼 먹은 심궂장 든 모두왕 애기 나는 더레만 심 잘 줍서양!”

난 짓데기 산소를 먹어노난 츠츠 정신 들어전게만 흐쉴 시난 그제사 눈도 터지곡 입도 훔아지곡 심도 흐쉴씩 생기기 시작흠디다.

우리 쉼 애기가 시상 베궂디로 나오기 전이 애기가 어떻 뉘어볼카부텐 겁질에 숨을 질게 들으궂다 밖앗다 흐명 나도 정신머리 바궂하게 출리젠 역블렸수다. 경흐명 흐쉴 시난 애기 내우는 기계 살릅는 소리가 부우웅 난게만 간호스 두 뎡이 나 배뎡기 누르뜨젠 양착펜이로 나 훔이 타앗안 싯고, 의스 선싱은 나신더레 정신 출리렌 웨제기는다 나 배소곱이 담아전 이신 애기궂장 알아들어짐직사리 웨울릅디다게.

간호스덜이 양착펜이로 나 배를 누르뜨곡 의스선싱은 기계로 애기 데강일 줍아뎡기명 제우제우 애기를 내완게만 어떠한 애기 우는 소리가 안 나는 거라마썸, 나 배소곱이서 곤 나온 애기가 울지도 안흐곡 아무 그적이 웃인 거뉘아군데 난 바궂하게 겁먹언 야게길 확 들런 애길 배려 뉘단 훔마 기절훔편 흐엿수다.

나 배소곱이서 곤 나온 핏뎡이 애긴 의스 선싱님 손에 거궂로 궂궂 돌아지

게 심어둬서 궁텅일 와작작 와작작 따려 봐도 ㄱ물락도 안ㅎ곡 올 충도 몰르
곡 나나 의스 선싱이나 문털 가심이 들각들각 추물락ㅎ게덜 노래엿수다게.

이틀을 어명배 소곱이서 시상 베껏디레 나오젠 브들랑 브들랑 ㅎ단 봐도
어명이 심도 웃곡 맥도 문 풀어져노난 어명이영 ㄱ찌들언 숨이 문 브따분 나
애기 어명ㅎ고...

“선싱님! 우리 애기 살려줍서양, 똑기 살려줍서양!”

시상 베껏데레 ㄱ 나온 애기 멧어분 숨통 살리노렌 의스 선싱님도 땀 찰찰
흘치명 스뭇 우리 애기 입광 코를 빨아간다 빨아온다 ㅎ명, ㅎ쫄 시난 나 귀
고냥더레 울엄직 맘직ㅎ 애기 소리가 ㄱ는ㄱ는ㅎ게 들어왔닥 말앗닥 ㅎ는
거라마썸.

이젠 살아났구나 ㅎ명도 애기가 어명 뒤편카부덴 스뭇 금착금착 ㅎ엿수
다. 애기가 숨 돌아오난 의스선싱님도 ㅎ숨 돌런게만 나신더레 ㄱ들지 말렌
ㅎ명 또시 ㅎ 소릴 ㅎ디다게.

“애기어명, 애기 아무상 웃이 질릅젠 ㅎ민 119 불러근에 큰 병완에 강 애
길 입원 시경 검사 받아볼게양?”

제우제우 숨 부텅 느랏ㅎ 애길 의스 선싱이 시기는냥 큰 병완더레 들안 간
살려냈수다. 경 심들게시리 췌 ㄱ식으로 이 시상에 나온 애기가 궤삼봉ㅎ명
질룬 나 딸이우다게.

경ㅎ디 그 췌 딸이, 나광 어명사 닳은디가 한디사양, 지레가 쫄른쫄른ㅎ
것광 이녀 ㄱ음에 안 들민 광광 광새궤이 웨제기는 것광, 먹을 것 시민 춤지
못 ㅎ영 아구리 소곱더레 언주와 담는 것광, 췌주 ㅎ 잔만 들어가도 양지가
사과추룩 불강ㅎ게 익어볼곡 데강이가 핑ㅎ게 돌아부는 것ㄱ장, 춤말로 무
사도 경 나광 똑기 닳아신디사 그 어명에 그 딸이렌 ㅎ 말이 나가 봐도 아니
렌 ㅎ 수가 웃인 딸이라마썸.

2017년 저슬 어느 ㅎ 날 딸안티서 전와가 와신디양,

“어무니, 나 대ㅎ ㄱ치는 기념으로 들어준 보험 무신 보험이랏수과? 재게
재게 곶아줍서!”

서월서 아무상 웃이 직장 잘 땡기는 딸이 갑제기 전와 완 두령청이 웨올르 명 답드리흐관테

“누게가 느신디 보험들렌 꼬섬시냐? 거 느냥으로 흐쉴 버슬어지노렌 보험 만 곱데가리 웃이 들지말앙 은행에 강 여금이나 하영 흐영 놉뒗당 시집갈 즈 본이나 모도올 여산흐라이?”

“어명도 춤 허지렁흐 말 말아근에 나 말에 대답이나 흐여줍서, 안 곶아 줄 거민 전와 끈읍서양!”

똥 날이라시민 카톡으로 흘 말 좇좇이 냉기는 딸래미가 때마춤 징심 먹젠 흐는 발라에 난디웃이 전와 완 이녁 흘 말만 버르장머리 웃이 웨제기명 화르 탁흐게 전와를 그차붓디다게.

정혜노난 난 부에가 스뭇 왈락흐게 나군테 전와 걸영 욱박썰길 데끼젠 흐 단, 경흐여도 그자 으망지게 이녁냥으로 버슬명 시상 돌아가는 거 알아보젠 흐염실 텡주 생각흐명 출려는 징심밥으로 뉘싸진 베설을 달루왓수다.

그루후제부떠 딸래미는 어명신더레 드명드명 걸단 전와 대려 흐루에 흐 번씩은 손전와기터레 쌍하트 이모티콘 부수 놀려데기명 벨라게시리 이녁 어 명신디 스랑 폐적을 흐여댁디다.

그추룩 카톡으로만 곶을 말털을 주곡 가곡 흐단 흐 날은 전와가 와신디양, 그 전이추룩 웨제겨난 목청은 좇아볼래기 웃이 츠분흐 목청이랍디다게.

“어무니, 나 큰 병완에 강 수술흐여야 뉘직흐 일이 셔부난 곤는 말인디양, 어무니가 나 일름으로 들언 놉둔 보험 이신 거 맞으우과? 벨일 아니난 즈들 지랑 맵서양!”

“야! 딸래미야게, 거 무신 가심 털어지는 소릴 흐염시냐게 이 어명 알아들 어짐직이 즐바로 도시려보라게, 느가 무신 벵이 싯그렌 경 곶압디게!”

“어무니, 경 노래지 맵센 흐난 무사 경 와들랑 흐옌수과게, 춤말로 나 큰 벵 난 거 아니라마썸, 그자 짓쟁이 즈꿏디 썩끌락흐 멍얼이 흐나 생겨신디 테여내부는 수술 흐여살 건디양, 의스 선싱이 수술 그르 폐적 웃게끔 흐쟁 흐민 로봇수술로 흐렌 흐여부난 수술만 대혹병완이 강 흐는 거라마썸, 나 아

무 충도 안 흐난 흐다 즈들지 맙서양, 나 곶아 안넌 말 그대로우다양!”

전와 끊어진 후제사 그 전이 전와 완 곶은 말이영 고만이 튼내우명 생각혀 보난 그쟝 일이 아닌 거 님은 짐작이 들어지는 거라양, 뜰림웃이 뜰 몸에 무신 송시가 생긴 모양인디 식솔덜 즈들카부덴 스실테로 곤덜 못 흐는 거 님읍디다게.

식솔광 떨어전 살명 멧 해나 직장을 덩겻주만 흐 번도 몸 아프덴 곶아난 적이 웃어난 뜰인디 보험 들막거리명 대혹벙완이 갈 일이 생겻덴 흐난 갑제기 나 가심이 들강들강 흐명 데강이가 헛득 흐디다.

그루후제사 스실테로 알아내신디 젓쟁이가 아니고 모계기 소곱이 신 갑상선이에 생긴 곳인 명얼 따문에 큰 수술을 흐젠 흐난 그 두린 것이 어명 근심지카부덴 스실테로 도시리지도 못흐곡 벙완비 하영 들어가카부덴 흐차서 가심 시커명흐게 태우명 즈들기만 흐여십디다게.

우리 뜰광 나를 설롭게 멩근 2017년, 그 해 동지선들은 우리 뜰광 나 가심 소곱에 찰찰 흘친 눈물로 써녕흐 얼룩베기만 키와넌 넘어갓수다.

2018년 무술년 노리롱흐 금 개해치가 온 국민덜 므음을 희망차게 일려세 우명 붉아웁디다게, 우리 뜰 눈망울추룩 딱똥글랑흐 보름들이 하널 우터레 흰흐게 터올르는 날, 뜰은 서월에 신 큰 대혹벙완이서 낮 전부떠 낮 후제느 직이갓장 진진흐 수술시간을 잘즌더 냅디다.

우리 뜰 수술 다 므천 나온 의스 선성이 곶아준 시상이서 질롱 지쁜 말,
“어머님, 뜰래미 수술 너미 잘 뒤엇수다, 모계기에 신 명얼을 테어넌 보난 양, 어디 하간 더레 발 번지도 안 흐곡 막 판직흐게 수술 흐여시난 이루후제 즈들 일이 웃일 겨우다양!”

하늘님도 우리 식솔덜의 비념을 잘 들어주엇주만 시상웃이 곶닥흐 우리 뜰래미 므음세 씹씹이로 곳인 벙도 다 돌아나블게 뒤 것엔 흐 생각이 들어집디다게.

“어머니, 나 냉견 놔둔 휴가 등겨오크메 나영 흐디 저디 유럽 귀경 가게양,

나 때문에 숨 브딴 뉘와져분 우리 어멍 가심 이 딸이 확하게 폐와 안네크메 양!”

“아이고~, 계난 이 어멍 느 때문에 숨 브딴난 건 알람구나이? 경흔디 흐 쫄만 지들렛당 저슬 들걸랑 그찌 글라, 느네 어멍 독마름 알려부난 벵완이 강 흐쫄 구완하여 낱 하간디 시상 귀경 느영 그찌들엉 짓 돌아뎡기멍 살키여 계”

“우리 어멍은양, 아방보담도 딸이 셔사 살아마썸, 나영만 놀레도 가켄 흐 곡양.”

“기여, 나가 느 겁죽인디 어멍흐느네게, 계구제구 이 어멍 느 율이 브짜하게 부멍 들앙 뎡기젠 흐민 느가 튼실하여산다이!”

어느절에 벵 구완 다 하여가멍 아무츨 웃이 직장 잘 뎡기는 딸을 보민 이젠 어른이 다 뉘엇고렌 이녁 가심 소꿉더레 나으 들어가는 이 어멍을 콤엇구나 생각흐난 나 마음이 물착하여집디다게.

선선흔 그슬 브름이 바당광 하널에 돌아전 하간 더레 슬슬 분체질 하여데고, 나광 딸은 옛날 셔난 일 튼내우멍 곱앗닥 곱앗닥 흐멍 웃음벨탁 흐단 보난 우리 딸래미 수슬 그르도 판찍하게 낮아 감수다.

공쟁이 걸어진 줄

문성희

밤 들빛 곱은 그은 실 하늘에 걸꼭
어염에 숨 춤안 앉안
지나는 바람 걸언 흥글거리난
곱닥흔 벵에 벨롱벨롱
나비 놀아 완
다솟 그지 색 고운 놀개 휘저시민
새옴다리 거미 확 나완 퐁퐁 뭉엇저
어마뎡어리
눈 엇인 눈이
시상을 꿰렘저

설문대할랑

윤보석

육지에서 남쪽으로 4백리 난바르 외딴 섬에
미리내를 좁아질 만큼 높은 할로영산 맹글어신디
흐쉴 높아되난 봉우리 툅 거쩨 사계 갓갓디 털어쳐 불곡
동편데렌 들랑쉬 용눈이 백약이
서편데렌 새별 바굼지 북돌아진
스방 하간디 스계절 아름다운 오름들을
스춘기 스나이 양지추룩 울통불통 솟게 흐고
할로영산에서 발원한 내창은 젓줄처럼 스방에 흐르게 흐곡
물이 흐르다 고이는 덴 너른 못 맹글곡
쑥부쟁이와 바랭이, 순비기낭과 종낭을 하간디 퍼뜨리고
가매기 밤버리 지다리 노루신디 숨도 불어넣어주곡
큰일 므친 할망은 풀 건어부청 빨래 흐는디
영텡이는 할락산에 대고, 오른 발은 자귀섬에
왼발은 관탈섬에 디덩근에 우도를 빨래관 삼양 헛주
밤 되민 섭지코지 등경들에 불 배롱하게 피웁 바느질도 흐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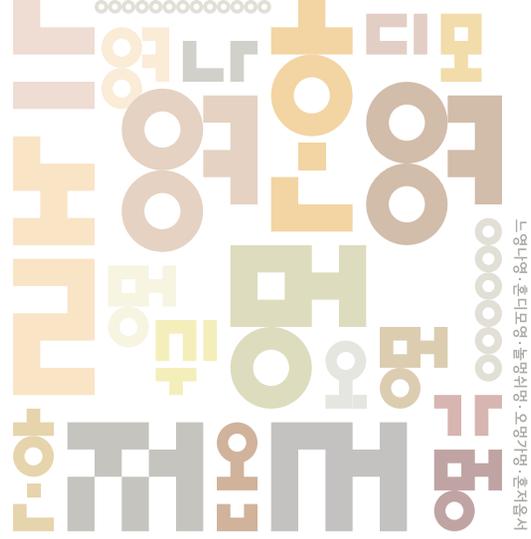
할망은 새 옷 입구정헌연 제주사름들신디
육지깁장 드리 놔주커매 새 옷 헌 별 헤도라 헤신디
제주사름들이 옷감 다 모양봐도 1필이 모자라는 거라
할망은 흙을 담양 나르던 앞치마 벗어 데껴불고
물장울의 깊이나 재보카헤연 거기 간 풍덩 뛰어들어신디
이태껏 느껴보지 못헌 차가운 기운에 휩싸연게마는
육신과 영혼이 순식간에 물 소곱이서 녹아불언
그로후젠 할망을 봤덴헌는 사름은 엇어져신디
누군가는 용궁에서 잘 살암실 거엔 헌곡
어떤 사름은 다른 별에 강 새 시상 만들엉
때갈 고운 멩지웃 입곡 맛좋은 음식 먹으멍 지냄덴 곤기도 험주만
제주사름들 믉심 소곱엔 설문대할망이 엇어지질 안햐서

나냥 느냥

정순애

가켁 흐건 강 내빌라
흐고픈 대로 흐렝 내빌라
감쟁 흐여도 내밀지 말라
보구정도 흐지 말라
나냥 느냥 사는 거여
살당 보민 헤짐도 흐곡
살당 보민 잊어도 지곡
간 날 일털랑 문엉 내빌라
빈 자리 나사 새 궁기 난다
꺾심 아프건 흐늘을 보라
잊어지는 것도 복이여.

칭원호 건 말로 도스리라
굴악 굴악 모다 도스리라
행편대로 웨대겨불라
흔시라도 즈들지 말라
나냥 느냥 사는 거여
살당 보민 부애도 나곡
살당 보민 웃어도 지곡
지난 일들랑 다 잊어불라
흔 므심 흙도 일이엿 흔다
귀동냥 말앙 눈동냥 흐라
눈에 들어사 내 게 웬다.



제 6 회



“나 초등학교만 덩겨나도 대통령혜실 건디”

현미경

나신디는양 할망이 잇수다.
늦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헝 잇곡,
손콕이영 발콕엔 까망헌 흑이 문영 잇곡,
허리가 굽어정 곧작 서지 못헌 그런 할망.

버스 탕 혼자 장에 나강
까망헌 비니루 다섯 개 들렁
콩주름 반찬 혀나.
칼치 반찬 혀나.
밥이영 물이영 헝 먹는 그런 할망.

항시 할망집이 가믄
굴갱이 손에 쥐영 김질메멍
헝루를 보내는 그런 할망.

우리는양 늘상 할망신디 영 말헬수다.
'이젠 일 고만허영 놀멍쉬멍헙서.'
할망은양 늘상 우리신디 영 말헬수다.
'나 밧디 나갈 때가 숨쉬어지메.'

바당이영 밧디영 아흔 평생을 살멍,
굽디 고은 양지에 주름이 늘어도 몰른.
손이영 발이영 튼살 베겨도 몰른.
허리가 굽어도 몰른.

그런 할망신디도 꿈이 잇수다.
시계 보멍 시영 분이영 익는 꿈 ㅎ나.
텔레비 보멍 글자 ㅎ나ㅎ나 익는 꿈 ㅎ나.
펜 가정 자기 일름 씨는 꿈 ㅎ나.

나신디는양 할망이 잇수다.
아흔 평생을 글도 숫자도 모르멍 산 할망.
'나가 초등 학교만 텅겨나도 대통령헤실 건디.'렌
빙세기 웃이멍 곤는 할망.

나신디는양 그런 할망이 잇수다.

“동고량착”을 알았수과

김상수

오가다 혼자리에 앉앙 우리 할으방, 아방덜이 살아온 이왱들을 들어보민 실로 제죽 사릅들이 어멍 저추룩도 준디멍 오늘까지 살아와신고 흐명도 춤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 흐는 생각이 무디무디 들어마썸. 그 중 ㅁ심 혼구석에 담아뒀던 이왱이 흐나 이신디, 바로 우리 아방이 스무남으슬적이 창댕기멍 살아난 “동고량착”이왱이우다.

요즘사 흑교서는 급식, 밭에서는 배달, 드르르에 가멍은 즉석밥, 흐명 정심을 스몫 출지게 해결햐십주마는,

당시 우리 아방덜은 “동고량밥”이랭흐영 허리에도 차곡 어깨에도 둘러메 곡 흐영 땀기든 밥그릇이 이서신디, 그 게 “동고량착”엔 혼 거우다. 잘도 아끼멍 요긴하게 요새 “도시락” 추룩 써 온 거라마썸.

이 “동고량착”은 수릿대를 즐고 ㅁ늘게 쪼개고 깎아 즈근즈근 밀어 욱아넌 대나무그릇으로 낭푼이보다는 죽고 사발보담은 큰 밥그릇의 흐나인디, 동그스름흐멘서도 알착우착 두 짝을 흐나로흐영 알착에 밥을 담아 짐이 다 나갈 때썸이민 우착을 든아 포제기로 쌍 들렁 땀기멍 주린 배를 채우멍 살았땡 합니다.

드르에 ㅁ쉬를 보레 갈 적이나 팔월 초ㅎ룻날 조상묘소에 소본 갈 적, 혼자서 바깥디 일을 보레 갈 적, ㄴ설은디 나갈 적, ㅎ룻해를 지왕 올 정도가 되민 쟁경댕기명 춤으로 요긴ㅎ게 써졌뎡 ㅎ여마썸.

ㅁ쉬 보레라도 갈 적인 동네꾼들이 서루 채죽덜ㅎ명 요나믄이 모당 가는디, ㅁ쉬를 보당 징심때가 되영 내창에 모다앉앙, “동고량착”을 올라가민 슬 짹짹 서로간이 이 눈치 저 눈꼴을 보는디,

“누게 밥은 곤밥, 누게 밥은 반지기, 누게 밥은 콩조팜”

그추룩 주웃걸명 벌려노앙,

“야, 좋다!”, “에고게!”

ㅎ순간 말잔치가 ㅎ마당을 채우곡,

당시는 쫄이 요새추룩 ㅎㅎ지 아니ㅎ영 간혹 곤밥이라도 봐 지민 문딱덜 쇠눈이 되곡, 반지기로만 “동고량”을 드득여도 감지덕지 노ㄴ룩ㅎ영 “오!” ㅎ는 탄성이 절로 나더랭ㅎ니다.

깡보리밥을 담아놓은 “동고량밥”을 먹을 땐 밥방울덜이 스방으로 튀어나강 그 걸 좇어먹쟁ㅎ당 보민 개미가 문저 츠지ㅎ염식곡, 또 그 깡보리밥 “동고량”을 비왕 일어사쟁ㅎ민 방귀가 “뽕, 뽕” 나왕 “아이고, 밥 먹은 게 다 나가부러져!” ㅎ명 웃음차작, 말차작 버버작작 ㅎ여대엿쟁ㅎ니다.

근혹 쇠괴기 물린거 ㅎ 점이나 갈치 절인거 ㅎ 토막이라도 출레로 걸쳐지민,

“거츰 코스롱 ㅎ다, 잘도 푸지게 출령 뎡점져” ㅎ명 부러왕ㅎ곡,

마농지나 생길이 줄인걸 줍져놔시민 브뜨니 공으로 살은 우리 어멍덜 애통그차지명 그 “동고량착” 채와준 생각은 ㄴ되버리곡

“애고 할망도...” ㅎ명 입을 빼죽이 내밀던 사름도 이섯뎡 ㅎ여마썸.

경ㅎ명도 줄줄 물 흐르는 냇창에 앉앙그네 산물 ㅎ 자박 떠 놓곡 “어 쭈굴라” ㅎ 물에 발을 등강 서로의 “동고량”을 ㄴ늬질ㅎ명 먹을 적이 그 푸지근 ㅎ광, 스방에서 주열재열 우는 소리라도 들려오민, 스몛 지꺼정 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곡 춤말로 세상이 문딱 지 꺾 곧았뎡ㅎ니 을메나 좋아실 건고양!

게다가 ㄱ꿈가당 탁배기라도 ㅎ 사발 들이싸지민, 누게 시키지 안 ㅎ여도
문저 나성 ㅎ곡지 ㅎ여보키여 ㅎ명,

“이야흥 이야흥.....” 타령이 나오곡,

또 누게가 이를 반앙으네

“너영 나영....”이나 불리재껴가민 서로가 어깨를 마주 잡아댕기명 “동그네
당실” ㅎ당보민 모다 슷봉테가되영 해츄룩 놀아정그네 브름은 ㅎ저 집이 들
어가라 웨울르더랭 ㅎ니다.

그 “동고량착”을 남들보다 ㅎ건 잘 채워보쟁 설룬 입 다시명 배 골리명 땀
방울이나 흘리명 살아실 우리 어멍덜은 어멍 춤으명 살아시고 생각 ㅎ민 지
금도 미안 ㅎ 생각에 눈이 붉어지곡, 그 슷실들을 어멍 잊어볼 수가 이시크니
ㅎ명 ㅎ숨을 내쉽니다.

누게네 집이 무슨 일이 이서나고, 누게 집이 무신 일이 돌아옴광, 동네에,
나라에 무신 벤고가 생기는 건 어신지, 슷실과 소문과 희망과 부러움을 터냥
소통 ㅎ던 춤으로 아끄운 말곤이 때가 이 “동고량착”을 ㄱ찌 비울 때엿쟁 ㄱ
라마썸.

또 이 “동고량착”이 춤 신기 ㅎ 거이 아멩 더워도 밥이 쉬질 안 ㅎ댕 ㅎ니
다. 대나무로 구멍이 송송 나게 짜진 그릇이라 밥이 숨을 잘도 돌아 쉬난 그
추룩 밥이 온전 ㅎ게 이서진 거랜 ㅎ는다,

요새에 나오는 슷텐도시락, 무신 락도시락들은 밥을 담아만노민 물이돌양
밥맛이 가곡, 줌 ㅎ민 밥이 쉬어부령으네 먹질 못 ㅎ여, 신다리도 못 ㅎ게되영
버리게 되니 당최 그 수준이 “동고량착”을 ㄱ라가질 못 ㅎ는 거라 예.

경 ㅎ난 “동고량착” ㅎ나만 봐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 ㅎ 기술이 대단 ㅎ 거
아니우짜?

무자년 그 광풍 속이서도 ㅎ건 살아보쟁 식솔덜거느려아정 설드력으로 영
장강알로 소개 ㅎ기명도 “동고량착”은 잘도 요긴 ㅎ게 쓰엿댕 ㅎ니다. 무사 이
법 웃이 사는 사름덜신디 그런 슷건이 닥쳐사신디 알 길이 웃주마는.

“으디 살아 날 구녕이나 웃인가?” 할망 하르방은 배골랑 죽곡, 아인 배 터
정 죽곡, 셔도 걱정 웃어도 걱정이던 시절, 산으로 바당으로 소문 ㅎ ㅎ 소문은

다 들으멍 주와주와 돌아댕길 적이 “동고량착” 밥은 사나흘을 거뜬하게 준다
게 하여줬댕하는 거로 보민 그 씨임이 잘도 펜하였든 거 ㄴ타마썸.

식솔 요랏이 움직일 적인 “동고량착”의 성인 “차롱착”이 대신하여 줬댕도
힙니다.

이추룩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쓰여져 온 “동고량착”과 ㄴ튼 것들이 다 잊
어지고 웃어져 가는 거이 춤으로 섭섭하고 애처로운 거 곱아마썸.

혹 우리네 후손들에게 이런 스실덜도 ㄴ라주곡, 또시 멩심하여 영 오고생
이 물려줘사 하지 아니하쿠광?.

아무 필요도 웃인 것 곱이 봐지는 “동고량착”은 춤으로 아꼬운 우리네 전
통 문화의 하나인 게 분뻩흔 거라마썸.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추룩 실로 우리 할으방 아방들이 손수 맨들고 손때
가 묻도록 애지중지 아끼고 전승하명 쓰던 우리 물건들을 잘 알아두곡 보존
도 잘 하여사 할 거 곱아 흔곡지 하여봤수다.

노영나눔모 노영나눔 노영나눔 노영나눔 노영나눔 노영나눔 노영나눔 노영나눔

노영나눔·홍디명·늘머사랑·오명기명·홍재명·홍재영서

제 5 회



땡~! 으름날 아이스케키쇼곱 행복

문혜숙

답나답나 원, 올히글이 더운 해도 잇어시카양?

일흐래 나갓당 즈냐이 집이 들어오민 우락우락흔 게 데불영 집이 앓앙 잇
질 못힙니다게.

경흐민 흘 수 엇이, 아까왕 못틀단 에어컨을 틀영, 커신 씨녕흔 브름도 맞
곡 냉장고에 쟁여놔둔 아이스케키도 빨아먹어가민 그제사 어이에 몸이 산도
룩혀가명 흐쉴 살아짐직혀여마썸.

이추룩 들코롬흔 아이스케킬 빨아먹노렌흐난 엄뜩 튼내어지는 여왱이 흐
나!!!

어느 신부님이 우리 성당 보좌신부로 완 잇일 때, 강론시간에 흐여준 말,
흔 곡지 도시리쿠다.

신부님이 초등학교 삼학년 때랏젠 힙니다.

벳이 과랑과랑 나명 불침엇이 삭삭 더운 어느 으름날이라서양.

혹폴 믹친 후제 땀 출출흐명 집더레 감신디, 그 조각벳 아래 빈직빈직
흐명 승시답게 돈 100원 거리, 500원 거리덜이 하~~영, 막 빼어전 잇어렌
마썸.

소뭇 지꺼진 므음에, 100원 거리 두 꺼 들런 위가라 점빵더레 돌아간, 쥬 쥬바 아이스케킬 사서양.

식상 행복을 다 앓은 사름추룩, 세로 식식 할르곡 쪽쪽 빨아먹으멍 집더레 가질 안ㅎ여수가?

신부님어멍이 그꺼 봐서마썸.

“떼꺼라! 야, 느 돈 어디 시난 그 아이스케킬 산 먹어신디?”

영 들은 거 아니짜.

“스실 영 정ㅎ연 이꺼 산 먹없우다” ㅎ는 말엔,

“아니, 스나눔의 즈석이 제우 200원을 앓안 아이스케킬 산 먹없젠 말이 라? 땅에 털어진 거 몬딱 봉강 아정왓이민 더 하~영 상 먹어젓일 거 아니 라?”

영ㅎ 소리에, 먹단 아이스케킬 땅바닥더레 내다붙여뵤, 산 자국에 똥줄나 게 그 디레 딱시 들러가질 안ㅎ여수가.

그 디꺼장 꺼은 신부님은, 우리 신자덜신디 들읍디다.

“간 보난 그 남으기 돈이 잇어실 거 닻수과, 엇어실 거 닻수과?”

ㅎ 밧디선 잇어실 거엔 ㅎ는 사름, 또 따른 꺼이션 엇어져실 거엔 ㅎ는 사 름, 모도 질로지만씩 대답덜을 ㅎ엇주마썸.

신부님이 ㅎ는 말,

“예, 단돈 100원거리 ㅎ나 엇입디다양!”

그 똥안에 블써라 누게가 완, 싹- 썰어가붙어서렌마썸.

그 허망ㅎ은 말로 꺼앙 몰르크라렌 ㅎ디다.

고싸 꺼꺼꺼꺼 아이스케킬 먹으멍 므음에 꺼득앓단 그 행복감이 ㅎ 순간 이 싹 돌아나부러렌마썸.

무사 경 아니ㅎ여시쿠가양!

어멍이 꺼은 그 ㅎ 므디에, 식상엇이 맛시러운 아이스케킬 들러 데꺼뵤 그 남으기 돈을 좇으래 돌아간 보난, 간디온디엇이 매기독닥ㅎ여실 때 그 두런 므음에 오죽이나 을큰ㅎ여실거짜.

신부님 여왓을 들노렌ㅎ난, 나나 ㅎ 간ㅎ게 나가 더 막 을큰ㅎ여집디다게.

그 말 끝쟁이엔 신부님이 우리 신자덜신디 곤는 거라마씀.

“나가 이제까지 오래 살아본 건 아니우다만은양, 이걸로 빵도 행복은 부작
흙엇인 풍족흔 디서 오는 게 아닙디다. 나가 체암이 200원을 앗안, 아이스케
킬 산 먹을 땐 시상 그 누게도 불럽질 안혀서마씀. 경흔디 영탁을 부련, 그
한한흔 돈을 몬 앗여당 더 하영 상 먹쟁 흐단보난, 제라흔 행복을 패씩-!흐
게 벌린 엇이대겨분 거라양. 게난, 행복은 흐썰 부작흐듯 흘 때 좇아오는 게
맞아마씀. 너미 하그네 밋밋 냉겨불민, 그게 행복인 중도 몰랑 기냥 지나가부
는 거라양.”

당신이 두린 때 징험흔 일을 앗영, 우리 신자덜신디 영탁부리지 말곡 늑광
누명 살아가렌 곱아주는 신부님이 나 눈엔 올케로 흘룽만혀 뵈디다. 떡
분에 나도 아름다운 동화쏘곱 추억더레 아련흔게 빠져든, 곱닥흔 시간이 뉘
엇임은 곱을 나우도 엇엇고마씀!!!

꽃자왈 이악

김상수

서울이나 부산 혹은 외국에라도 갔던 올 적이, 제주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느끼는 젤 문침 와 듣는 게 무시겨우짜? 바로 슬랑슬랑 들려드는 제주의 뭍은 공기 아니우짜.

요 제주의 뭍은 공기가 무사 이추록 스맛 좋은지 알아지쿠과? 그 비밀이 바로 제주 섬의 숨통, 꽃자왈이 제주 흔 ㄱ운디 앓앙 이신 때문이라 마썸. 그자 숨통엔 흐는 게 아니라 마썸. 그추록 제주섬엔 이 꽃자왈이 중요흐된 흐는 거 임을 알아사 흐쿠다.

시방을 사는 우리들은 이 꽃자왈을 잘 알앙그네 어서지지 안흐게 흐여사 흐쿠다. 역새, 엉경퀴, 꺫가시낭, 볼렛낭, 멩기구슬낭들이 무데기로 왁왁 어울러지곡 수 많은 돌맹이 돌담들이 늘어 쫘여 줄낭덜이 엉크러져 늦이 ㄱ득 흐영 는착는착 흐는 오름들에 들당 보민 춤으로 꽃자왈의 신성함을 슬가죽으로 슬그락슬그락 느껴 질 겨우다.

요 꽃자왈은 제주에 화산이 터져 나오멍 문닥문닥흐 용암이 흘러가당 멩쳐지언 스스이 굳어지멍 맨드라진 땅 우이 저츠록 혁이영, 풀이영, 나모영, 노리, 꿩, 몰덜이 싸벌린 똥 오즙이 무데기로 쫘이멍 생겨진 땅이우다. 대개가 며덜광 빌레, 얼렁창 으로 되어 이신 디 입주기. 그 위에 수 천 수 만년동

안 눈, 비, 바람이 스쳐가며 풍화되고, 풀, 나모등이 나고 죽고 먼지가 쌓여지
며 오늘에 이르게 된 거라 마썸. 세월이 흐르며 늘상 그치지 아니하는 브름
에 하간 종네기들이 느라들고 혼짓네 비가 하영 오며 느릿느릿 하여진 게 오
늘의 요 곳자왈이 된 것입 주. 돌이, 빌레가 숲이 되고, 그 숲이 브름이, 공기
가 됨신거라 마썸.

요추록 맨드리진 곳자왈덜이 무데기로 잇어진 디를 제주의 숨통, 제주의
보물이랑 곤는다, 요리 혼 디는 세계에서든 제주에서만 볼 수 있대 텨 흡니
다. 경흐난 제주의 자랑이곡,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올려진 거라 마썸.

가당오당 보민 요 곳자왈 틈새에 구멍이 횡하니 뚫어정 이신 디가 이신 디,
요거를 숨골이랑 곱습니다. 요 구멍은 용암이 흘러나가던 구멍으로 한라산
광 그 드르에 고래장비가 아뻤 쏘아져도 제주도는 물바당이 안 되는 깃닭이
요 숨골을 통하영 빗물이 바당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엿 하여 마썸. 또 요
숨골로 숨어든 물이 자왈에서 멈추어 간직 하여졌당그네 지하수가 되영 오늘
날에 우리가 먹는 그 유명한 “삼다수”가 되기도 하곡 집집마다 먹는 수도물
이 되엿다. 물허벅이 소용어시 된 것도 요 덕분이라 마썸. 경흐디도 도새기
등을 키우며 나오는 축산폐수를 요 숨골들에 슬직이 들어 흘러보내영 스방
에 내우살을 풍경그네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이뻤이 슬을 찌푸리게 하는 거
나, “난 먹지 아니 흘 거난, 난 쓰지 아니 흘 거난” 하명 춤 바까불명도 그 물
을 삼년도 안 되영 지가 야가지 숙영 먹게되곡, 그 물로 잔치도 치루 게 될 줄
모르는 사름덜이 이선 춤으로 걱정이우다.

곳자왈 속엘 들영 보민 풀, 나모가 늘 ㄱ득 사 있는 디, 그 죽은 나모, 풀들
이 너부러져이성 발이 똑씩똑씩 빠지기도 하는 그 속이는 우리가 모를 비밀
이 하나 이서 마썸. 나모도 풀들도 하건 살젠 내길 하명 뿜어내는 산소와 스
철 무르지 아니 하는 물이 숨을 그치지 아니 하영 혼 시도 쉬지 아니 하영 밖
아내니 그 거이 맑고 고운 공기가 되영 제주에 ㄱ득하는 거라 마썸. 경만하
우짜 저 4.3사건 때도 요 곳자왈이 이성 질트레비 딱랑 그 불한당 ㄱ튼 놈들
을 피하영 살아 날 수 있어꼬, 개백년 송년 때에도 사름덜을 배 ㄱ득영 살려
줬쟁 하난 그 고마움을 우리는 잘 새경 들어 뒤사 흘 거라 마썸.

이처럼 고마운 이 꽃자왈을 지키고 선 벗남, 소남, 이들을 휘감아 늘어진
츄덩굴, 맹게덩굴 흐명, 한란, 춘란, 새우란, 콩란, 풍란 흐명, 볼레, 므람, 삼
동, 즐갱이등 요름들 흐명, 원곳 보물들이 그득 차 이시니 더 장관이랑 소문
이 나난 요새엔 시상 사름덜이 하영 덜 좇아든맹 햄쭈다. 이 들에게도 스실
을 잘 으르켜사 흐쿠다.

요세 와서는 돈에 눈이 멀영 산이곡 들이곡 꽃자왈이곡 빌레곡 그리지 않
앙 개발, 개발 췌우데기명 갈아 옳으곡 밀어 재끼곡덜 흐영 우리 꽃자왈덜이
부쇄지고 이서마췌. 골프장이, 건물들이 들어서고 질이 짹짹 나명 금이 동서
남북으로 내긋어 지곡, 요금 요금 꽃자왈이 날로 웃어지고 이시니 이 일을 어
땡허코 마췌.

경흐영도 흐 쪽에서 췌췌즈들지만 안 흐영 “꽃자왈을 지키자” 흐명 신문
에서도 곧곡, 방송에서도 즈주 거느리는 거 보민 흐 므심 놀 만도 흐우다마
는 제주 사름덜 모두가 나서서 즈주 살펴 사 흘 거 곱아 마췌. 스세부득흐맹
흐영 먼 산광 허천바당드레 세경바레당보민 춤말로 무신 일이 날 것만 그타
마췌.

“게무로사 영 되어부카부덴 해시냐게, 일이 이영 되어부난 요든에 그든에
어땡 흐는 수가 웃어, 춤으로 복장 터질 일이라 이.” 흐명 즈들지만 마랑 미
리 미리 죽헌 방안을 세워 놔사 흘거 곱아 마췌. “으마땡어리!” 흘 땡 늦어부
는거라 마췌.

원체 좋은 디서 시상 모르게덜만 살단 보난 누게가 경흐라 흐명 내불지 마
랑, 우리 제주의 숨통인 꽃자왈, 온대로 지경그네 우리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시리 맹심덜 흡주 양!

진플왓디

김선진

진플왓디 사름이 안 봐 점수다.

문딱덜 하간디로 가분지가 오래연 예,

4.3 벗고장 딱란

푼롱 푼롱 느라가불어사신디,

4.3 피브름 후림에

후우훅, 밀아져부러사신디,

게나대나

진플왓디 사름이 안 봐 점수다.

흔저흔저 모여정

묵은 터 집의

풍채도 글곡

암쇄도 들이곡

우갓디 검질도 거두대경

감저도 싱그곡 모똥도 갈아가명

무 배치 씨도 부쳐사

경해 사 혼 저슬 살 건디 계,

영흐명 얼메나 더 살아사 흐코 양.

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
 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
 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
 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
 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
 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
 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노영니

노영니영 · 노디모영 · 노명사영 · 노영기영 · 노재영사

제 4 회



바당 엇어시킨 어떻게 살아시코이?

김성춘

난 양 바당 저끝디 살아가난 바당밭을 공꺼로 버시렁 먹으멍 아흠 성젤 다 물질로 맥여살린 해녀할망이우다. 우리 말젿 딸이 하도 언강부리멍 ‘나가 어떻게 살아와신고’ 그라도랜 조르난 흐끔 그라보크매 들어봅서 양.

“나가 세 설에 아방이 바르칠 갔단 오꼬시 배가 브름에 불련 바당구신 되어부난, 어멍이영 끝이 큰 오라방 집이서 도사리 흐멍 살아수게. 어멍은 동네에 초상이 나민 ‘어떤 사름은 복도 하그네 신체 모성 영장을 햄신고’ 허멍 애가 그차지게 읍디다. 난 아방이 어떻게 생긴 사름산디도 모르난 큰 오라방을 아방추룩 생각허멍 커수다. 다숫 설 나난 밭그랑에 앗앙 검질을 매여신디, 조반을 즐바로 못먹어부난 지신이 흘썰도 어신거라 예. 큰 오라방 딸이 나상에는 삼춘조캐주만은 나이가 끝아부난 그추룩도 날 구박헷디다게. 밥 먹젠 허민 ‘제게 먹으라, 하영 먹엄저’ 허멍 다울리곡, ‘밥은 흐끔 먹곡, 물은 하영 먹어사 더 크매’ 허멍 존다니 허곡. 이제 왕 두린 때 생각해 보민 배 고폡 올단 일이 젤로 칭원헷니다게. 그뎀 어멍덜도 아이덜안티 ‘물도 기리곡 배도 고폡 봐사 시상 물정 아느네’ 허멍 배고팡 우는 아이덜을 달래십주.

밭일은 무사 경 하여도 하여도 끝이 어신 버친건고 예? 땅강생이추룩 밭
그랑에 즈름 붙영 앉앙 하루 종일 지신 검질 매당보민 양지도 모른 아방 생
각이 경도 나는거라 마썸. '나도 아방만 이서시민 흑교 올레는 뽕아 봐실건
디' 허멍 혼숨도 하여 쉬어수다. 경해도 고생허는 어멍 생각허멍 붙끈 춤앙
브지란이 굴갱이로 빌레왈을 조사십주. 손바닥 붕물곡, 독지 알리곡, 종애
저리곡 허는 건 춤을만 현디, 므슴대로 도라댕기지 못허는 건 잘도 못춤으릅
디다 예.

경어난 벗들이영 물때 맞청 보말 잡으레 바당 가는 일이 놀레 가는 거추룩
경도 좋읍디다게. 늬보단 제게 가젠 드르당 푸더짐도 하여 해수다. 우리 동
네 지집아이덜은 일곱 설만 되민 바당에 강 물질을 배워십주. '하나 두울 셋'
허민 다 곶이 물에 들어강 누게가 젤로 오래 물 소굽에서 숨을 춤앙 전디는
고, 누게가 먼저 돌멩이를 제게 주성 나오는고, 누게가 저 엉장까지 제게 휘
영 갔당 오는고 허는 게 물질 배우는 거라 마썸. 경 허당 보민 조연적으로 물
질을 헐 줄 알아지는거라 양.

열 두 설이 되난, 우리 성이 지붕 우에서 젤로 요망진 곡을 하나 타단 테왁
을 맨들어 줍디다게. 속곳 입곡, 죽은 눈 쓰곡, 머리에 수건을 즐끈 졸라매
난, 진짜 즈수가 된 기분이 듭디다. 구제기를 잡앙 망실이에 담으멍, '호오이,
호오잇' 허는 솜비소릴 질러보난, 제라허게 즈수가 된 거 닳읍디다게. 큰갯물
바당이 문딱 나 꺼나 되는 거추룩 경도 지꺼지카 예? 하루 종일 혼시도 쉬지
안해영 구제기, 물꾸럭, 바르 잡으멍 어른 물질 허듯 아기사군질을 잘도 해수
게.

열일곱 설 나난, 부산 즈끝디 이신 '밀포'엔 현 디로 초용을 가수다. 3월에
나강 8월 멩질에 오는 거난 댓각 반 년을 집 떠냥 일허는 거주 마썸. 선주가
날 두리텐 허멍 돌양가지 말젠 딸라부난 애기업개로 바짝 돌라붙언 곶이 가
수게. 경해도 거기 도착헌 후젠 다른 즈수들이영 굳짜 물질을 곶이 해수다.

물이 배랑 짚지 않은 곳바당서 우미를 즈무는 일어난 벨헌 기술이 어서도, 욕심 있곡 브지런만 허민 되는 거라 마썸. 어떨 땐 배를 탕 먼 바당더레 강 난바르 물질을 해신디, 즈수들이 곶매들영 노를 저으멍 잘도 설롭게 노래를 하는 거라 예. ‘칠성판을 등땡이에 지곡, 혼백상질 임땡이에 이곡, 목심 걸영 이 물질 해영, 어느 서방 땡영 살릴꺼고?’ 그 소리가 어땡사 설룬디사, 나도 즈수 어른들이 우는 트멍에 앞양 곶이 눈물 조배기나 흘려수다게. 물질 허당 보민 안반곶던 나 허리가 정대곶이 다 몰라부러마썸.

그 물질을 마청 집으로 온 후젠, 두 번 다시 육지물질은 가지 못해수다. 육지 사름덜이 날 보민, ‘밥통 봉갸저’ 허멍 메누리 삼젠 하도 허난, 나만 소굽으로 ‘어땡 허코’ 저들아전 역불로 똥명다리추룩 슬째기 곱양 땡기곡 해수게. 육지선 ‘제주 예즈가 메누리로 들어오민 식솔을 문땡 땡여살린댄’ 허는 소문이 낭 이신거라 예. 경도 경 혈 것이, 그땡 물질추룩 돈 되는 일이 어서수다게. 즈수들이 악적곶이 물질허멍 돈 벌곡, 쉬는 날엔 주인네 밭일 해칭 밥을 얻어 먹영 조냥허곡 허난, 물질이 끝나민 밭 혼파니씩 살만이 돈을 벌었주 마썸. 경헌디 이 일을 우리 큰 오라방이 어땡허단 알아분 생이라 양. 허근 돈 더 벌영 우리 어땡 기십 피영 배지근하게 살게 허젠 해신디, 오꼬시 곶은 동네 사는 총각안티 날 폴아부러마썸.

시집은 대포 일등 가는 부재집이난 어땡사 들 령이덜이 한 지, 일 부재도 그런 일 부재가 어신거라 마썸. 아이고, 나 봉역에 무신 호강혈 일이 이서시라 만은, 시집 보내멍 우리어멍이 ‘아땡 일이 하도 즈름 붙이지 말양 하르방 할 망 시키는 양 허루허루 살암시민 살아진댄’ 그라준 말 생각허멍 츄으멍 전 디멍 살아수다. 그 밭일을 도말양 허멍 굳짜 물질도 곶이 허멍, 땡 일곱에 아들 두 성제를 해 곶르멍 낱아십주. 우리가 종손이라부난 왕 할망도 곶이 모성 혼집에 살안 마썸. 혼솔밥을 먹는 식솔이 열 두어멍이 넘어부난 출레나 즐바로 출런 먹어져수과게. 매날 동 트기 전이 일어낭 말치솔 그득 보리썰 숲아 놓곡, 감저나 지슬도 저곶디 하영 처 놔동, 우녕팔디 송키 캐당 시쳐만 노민,

아이덜이 어그라 일어난 살레에 이신 자리젯이영 마농지영 이녁만씩 봉가 당 밥 먹는 거주 마썸. 쿠싱헌 거 베지근헌 거 흐나 어서도 출레 엇댄 부애내는 사름 어서수다. 입메 쫄르게 주악거리당은 지 야개기만 고느라질거난 마썸. 아고 첨, 우리 집이 질 저끝디 이서부난 지나가단 동녕바치도 정제에 들어왕 지 모습냥 솔두깁이 열영 밥 퍼 먹영 가곡 해수게. 그땐 무사경 육지서 왕 돌아댕기는 동녕바치영, 미친사름이영, 상이군인이 경도 금착허게 하서신고 양? 경헌디 이제 왕 생각해보민, 통게에 물 흐 허벅 질어다 놔 똥 어두룩헌 발더레 갈중이 걸치명 내돌당 보민, 열레기질 못해영 범벅진 머리광 밥 못 먹영 느치름 흘리는 나 서농가리가 영관 어시 뚜럼이라나수다게.

아방이 원채 일을 잘 흐난 성님이 이녁네 받까지 우리안티 벌어먹으랜 흐 거라 마썸. 경흐난 낮이곡 밤이곡 일만 일만 흐명 살아수게. 밤중에도 들이 북으민 보리를 훑으든, 벧짚을 묶으든, 툄린 감저를 주스든, 몸뎡어릴 돌탱이추룩 보지란이 굴려수다. 그슬 틀민 저슬에 쇠 맥일 출 배레 할루산에 올라가십주. 오명 가명 허는 시간을 아끼젠, 이틀 사흘씩 드르판디서 자명 밤을 낮 삼양 일을 해수게. 경 흐 땐 집안일이영 웬만헌 발일덜은 딸들이 도맡아 해연 마썸. 반공일 되영 딸 일곱이 쭈련이 앗양 걸질을 때민, 동네 사름덜마다 지나 가명 오명 ‘정열이 어명은 조크라. 일 잘 허는 딸들이 경도 하난’ 허명 잘도 부러웁헉디다게. 난 양, ‘일허기 실푸민 먹지도 말아사’ 허명 그추룩 착헌 우리 딸들을 다올리명 부러먹어수다. 경 존다니 흐명 왜올러도 우리 아이덜은 속숨해영 나 곧는 양 말도 잘들읍디다 예. 아이고, 말젯년썸은 ‘어명 덕분에 학교 뎡접수게’ 허명 빙삭빙삭 웃는거라 마썸. 요새 사름덜은 아이덜 안티 영 존다니 흐는 거 고라 ‘가훈’이랜 헉디다 예.

해가 진 여름이 되민 어명사 꿩이 뽀사지게 일이 한디사, ‘쇠로도 못나난 제주예즈로 나신예’ 허던 우리 어명 딸이 설롭게 생각납디다게. 아침에 일어난 동새베기 받으레 내돌아강 어두룩 헉 때 일을 시작했주 마썸. 해가 중천이 올라왕 뚝이 범벅이 되민 태악을 정 어그라 바당더레 내돕니께. 물때에 맞췌

모다든 줌녀덜이영 곶이 숨 버치게 물질해영 망시리 그득 구제기 잡아지민, 오후 너 다숫 시에 다시 밭더레 돌아왕, 매당 건장해 논 검질을 다시 매어십 주. 서 너 시간 일허당 보민 해가 서트레 지울곡, 또시 어둑어둑 허민 하늘에 승승 뜬 벨을 보명 시간 가남해영 집더레 돌아완 마썸. 저녁은 딸들이 당변을 정해영 지네덜끼리 돌아가명 흐는 거 닳은디, 나사 밥을 먹영 살아져신디 말 아신디 모르쿠다. 우리 딸덜은 문딱 동네 사름덜이 인정허는 요망진 아이덜 이우다. 우리집 아방은, ‘우리 딸이 일곱이난 살았주, 아덜이 일곱이민 못살 아실거여’ 허명 경도 딸 사랑을 해여십주. 흐 여름이 지나민 나 몸도 재열추 룩 외짝허게 몰르곡 시켜명허게 타주 마썸. 생각해보민 사름 산디 쇠 산디 모 르게 일만 흐명 살아 온 세월이우다.

아이고, 사름 사는 거사 다 비슷허주만은 물질 흐명 아기 나명 검질 매명 살아 온 제주 해녀곶이사 승악허카 양? 해녀박물관에 가보민, 나가 물질 흐 명, 아기 나명 고생 현 소릴 들어질 꺼우다. 어느제 산디 젊은 사름덜이 사진 기영 녹음기랜 허는 거영 가져완 나가 곶는 소릴 기계에 담양 가수다. 할망이 출람생이추룩 놓든댄 허지 말양 그 소릴 흐 번 들어봅서 양.

‘아기를 배여도 나는 날꼬지 열 덜 동안 굳짜 물질을 해서, 아기가 나오민 이틀만이 다시 물에 들어가곡 허명. 경헌디 아기가 빠져볼민 배가 흑씩해영 자꾸 허천디레 자빠지곡 히엿뜩 히엿뜩 허는 거라. 흐는 수 어시 수건으로 존 동이를 줄끈 줄라매영 물질을 했주. 흐루는 물질흐는디 애깃배 맞췌 배가 막 아파오는 거 아니라게. 춤당 버천 물에서 나와 막 서둘령 집으로 내들왔주. 동산 흐나를 더 넘어서 우리집인디, 오꼬시 아기가 막 털어짐직 흐는 거 아 니라. ‘아고게, 설룬 아기야. 훌썰만 춤았당 나와도라 이. 질 바닥에 털어지민 니도 고생, 나도 허주 아니냐. 게무로사 저기 배려지는 집꼬지사 못춤으크냐. 어명 준더보게 이.’ 흐명 달랬주. 홈마 마당에서 나왔직 헨게마는, 가이가 효 잔고라 저녁밥 먹언 훌썰 더 싶단 나와 쥘. 아이덜이 그추룩 다 착해연, 문딱 덜 저녁에 나와준 거 닳은게. 생각해 보민, 나 혼자 물질흐 게 아니라. 우리

아이털이 모다들영 다 곶이 도와주난 혼거게.

혼 시상 사는 거, 혼 순간이라. 바당 어서시민 어떻 살아시코 이? 바당 밭, 춤말로 고마운거여 이! 아명 생각해 봐도 순전히 바당 보름에 구 남매를 다 큰 공부시켜져서. 물질은 목숨을 내놔 혼는 거난 잘도 위험헌 일이주만은, 혼 시상 살아가는 게 싸는 물 이시민 드는 물 이신 거 아니라? 아명 죽어점직 해도 춤으명 전디명 살암시민 다 살아지는 거주게. 우리 어명이 살아온 거추 룩 즈식 혼나 밍영 살당 보난 혼 세상 잠깐만이 살아져서. 나가 올해로 구십 넷인디, 요새곶이 정광혼민 백설꺀진 살아짐직 해여. 우리 동네 부택이 어명은 노망도 안 허명 백 혼설꺀지 살았주게. 즈식덜 고생시키지 말앙 오 몽혈 때꺀지 나 손으로 밥해 먹당 혼 사나을만 드러녕 우리 아방 이신 저 천당드레 가져시민 잘도 조크라. 이게 나 분시 어신 소원이주!”

두릴 적 신단 색동 고무신 여악

문혜숙

나가 난 딴 서귀포시 남원읍 때미(위미)엔 흐 디우다.

아멩혀도 그게 나가 대으숯 쫄(5~6세)은 웬 때라서마썸. 생각남수가? 무사 우리 두릴 땀 무궁화 고장이 웬착 느단착에 기려진 거멍흐 고무신을 신 어수계양! 그걸 하도 오래 신단보난 흐착 신이 가운데편이로 다 혈언, 어느 흐룬 착-! 흐게 치저저볶디다게. 흐썰 견젠만 하여도 벳게저볼곡, 비나 오는 날이민 더 민질락민질락흐명 막 굿인거라마썸! 흘 수 엇이 어명신디 신을 사 노랜 답달흐질 안하여수가? 어명은 엇인 살럼에, 우리 으라 성제 키우젠 흐 난 즈연이 돈은 엇어실겨주마썸.

“흐쫄만 어뎡어뎡 신영 뎡겸시라. 이루후젠 돈 봐지민 사주마.” 달래엇주 마는 어명 조름 좇아 뎡기명 울명실명 사네랜 들이몰아수게. 흐룬, 모큰흐게 믱음을 먹언 밧디레 가는 어명 조름을 좇아가명 신 사노랜 악살을 하여수다. 어명은 성가시루완 뒤돌아산 막멩이로 나를 막 다울립디다. 어명이 다올려가 민 뒤터레 무너삿당, 어명이 돌아상 밧디레 가 가민 또시 좇아가기를 멧 번,, 말짜엔 어명이 욱흐명, 돌칙이 들런 막 맞힙디다.

그처럼 실갱이를 하단도 께국엔 베설곳인 나가 어명을 이겨십주마씀. 나, 막 잘하지 안혀여수가양!!! 경흔디, 우리 어명이 어명흔 신을 사온 중 알암수가? 시상에나 망상에나,... 난 생전 꿈도 꾸어보질 못흔 곱닥흔 색동 고무신을 사온거라마씀. 얼메나 가심이 별랑겨려시쿠가? 놀개가 잇이민 놀아댕기 고정 흡디다. 그걸 츠마이 신영 땡겨져시쿠가양? 신영 땡기기 아까완 어루 썰고 누리썰명 콤에 콤영 땡기곡, 밤인 이불 쏘곶에 곶이 즘 재우곡 햅명 상전으로 모시명 살아수게.

경흔단 어느제 햅루는 집이 손님이 와서마씀. 막 귀햅게 잘 모셔사 되는 손님이라신고라, 어명이 그 옛날에도 귀햅 나멘을 톡 햅나 사완 끌립디다.

그 나멘 끌리는 내음살이 마당 그득 퍼지명 사름 죽이는거라마씀. ‘어느제 민 다 끌렁, 어명이 손님신디 겨려 가불민 난 국물이라도 얻어먹으코?’ 가마 귀 알아곶탁 털어지도록 뵈력뵈력햅명 지다려수게. 민 끌려져신고라 어명이 사발 그득햅게 나멘을 겨런 방더레 가븍디다. ‘이 때다!’ 햅명 정제에 가마솥 디로 돌려간, 정신엇이 국물광 나멘 건지 브시레기를 너미나 맛시릅게, 애끼 명 겨려 먹어수게. 츠말로 돌리가 먹당 햅나가 죽어도 몰를 그 맛!!! 곶앙 몰릅디다. 경흔디 어느 순간, 느단착 엄지 발꼬락이 와쌉~ 떼분겨라양. “앗, 떠블라!” 햅명 발을 들린 내와단보난 그 스이에 그 애지중지햅단 색동고무신이 불에 칸, ‘지지지직-’ 녹아분 겨라마씀. 시상엇이 맛시루운 나멘맛에 솥전, 곱닥흔 색동신을 신은 발이 솥강알 소곶이 들어강 이신 중도 몰랐던 거마씀. 발꼬락이 와직바직 데영 아픈 건 아무상토 안햅곡, 그 아까운 신착이 녹아분 것만 너미나 애석흡디다게. ‘이 노릇을 어명햅민 좋으코? 경햅고 이제 난 어명신디 맛앙 죽엇져.’ 생각햅난 눈 앞이 콤콤 흡디다. 아니나 다르카 그 날 어명신디 부짚땡이로 피명들게 맞아수게. 경햅여도 아픈 중도 몰르고 색동고무신만 눈에 벨롱벨롱 흡디다.

그처럼 따리단 어명도 제작년(넘은혜) 으름이 저 시상으로 가비연 엇이난, 이지금(시방) 스뵈 보고정햅우다, 어무니~~~!

흐다 느네랑 걸라사지 말라이!

고 효 숙

등장 인물- 어멍, 아덜 : 홍석리아방, 메뉴리 : 홍석이어멍

(아들은 집으로 들어서는 어머니를 얼랍지게 반기며 맞이한다)

아덜 : 아이고 어머니, 어멍흔 일이짜, 기벨도 엇이,,

전화 흐 통만 흐민 차부에 들레 갈거 아니짜게,,

어멍 : 에에, 흐썰 심은 들어도 기자, ㄱ닥ㄱ닥 걸어올만은 흐여라.

경헌디 칭겔 걸어아정 올르젠 흐난 너미 버침은 흐다.

메누리 : 아이고 어머니, 오젠흐난 문짝 속아수다.

게메마썸...,우리 홍석이간에도 에레베타 신 빌라로 이사가게, 이사가
게,, 입에 돌아아정, 노랏 불림수다게.

어멍 : 게메 말이여, 요지금은 땅깁이영 집깁이 너미나 올란 걱정이여...

홍석이어멍아, 이거 말으라보저.

(아들이 바구니를 받고 며느리는 무엇이 들었나 살펴보며)

메누리 : 어무니, 이거 무시겨 영 벤벤하게 하영 들러아전 읍디가?

이젠 어머니 혼차 몸만 땡김도 소뭇 버치곡 징칠 안홀건디,,

아덜 : 게난 어머니, 연락을 흐명 땡김서. 나가 저들아점수다.

어명 : 엇다, 안직 7장은 이추록 나 혼차만도 오몽 ㅎ여지난 소망이주.

경 ㅎ곡 나 소원은 느네 의지안 ㅎ영 혼차 살당 죽어지는 거여, 그거만 이 복 존재 어디 시크니?

(어명은 혼자 손발을 주무르고, 며느리는 호박, 노각, 배추를 정리한 후 음료수를 들고 온다.)

메누리 : 어머니, 산도록 ㅎ게 이거 ㅎ썰 들이쌘서.

경 ㅎ디 집이 무신 일 잇우과?

어머니 오난 반갑긴 ㅎ우다만은 연락도 엇이 강제기 온 게 아멩 ㅎ여도 이상해 웨연마썸.(어명과 아들이 음료수를 먹는다)

어명 : 요 메칠 스이 꿈사리가 하도 싸무라완, 기냥 잇일 수가 잇어사주. 나 보담도 느네신디 무신 일 시냐?

(아들은 상황을 피하려 떨어져 앉고 며느리는 더 바싹 다가앉는다)

아델 : 아니, 살당보민 아무 일도 엇임사 ㅎ니까만은 어머니가 저들만 ㅎ 일은 아니우다.

어명 : 아이고, 거 보라게, 게난 무신 일이 시킨 신 생이로구나이?

게메, 아난게 아니란 저껏디서 ㅎ끗이 웨려 보난 흥석이어명, 느 양지가 쾌랑 ㅎ 게 수심이 7득았저.

메누리 : 게메마썸, 이 말을 어머니신디 곱양 좋을 것산디 몰르쿠다만은 우리양, 요새 매날 7되만점수다게.

어명 : 아마, 이것사 벤이여!! 게난 무신 때문이니? ㅎ저 곱으라보저.

아델 : 7만 잇어, 나가 곱으크메. 요지금 이 제주도에서 돈을 벌젠 ㅎ민 양, 떡거리 장시를 ㅎ여사 웨어마썸. 게난, 나가 직장을 때리치와똥 식당을 ㅎ여보켄 ㅎ난 흥석이어명이 노시 못허게만 ㅎ염수게. 에이- 짹.

메누리 : 아이고, 요 작산 어른아! 게난 아무상엇이 식당만 ㅎ민 돈 벌어지카 부텐? 어머니! 이 아방 벗이양, 저 시청 저껏디서,

“궤기는 아무나 먹나! 술광 안주도 아무나 먹나!” ㅎ 식당을 출련 돈을 벌어가난, 이 아방도 소똥 뺨 뺨안, 요 쫄존 집 ㅎ나 잇인 거, 담보 7쩍히고 대출받양 식당만 ㅎ켄 날 부수 몰암수게.

요지금 나 대가리가 딱딱 벌러점수다.

아덜 : 야, 그건 너가 요새 시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부난 그거 아냐.

어린이집 선싱ㅎ명 기자, 애기덜ㅎ고만 놀단보난 무시겉ㅎ여사 돈을 버는지 너가 알게 뭐냐? 이 뚜럼아!

메누리 : 어머니, 이 사름, 말ㅎ는 뽀상아릴 뵈려봅서, 툵-ㅎ민 나신디 시상 물정 몰르는 머굴챙이엔 무시ㅎ난, 아멩 서방이주만은 궤양 뵈려지쿠가양?

어멍 : 후~(한숨을 크게쉬며) 느네 말을 들언보난 나가 아덜을 너미 잘못 키 왓젓져, 아이고 흥석이어멍아, 나가 미안ㅎ다.

(며느리 손을 잡으며 손등을 쓰다듬어 준다)

메누리 : 아니우다게. 무사 어머니가 흥석이 아방을 잘못 키운 말이짜? 어 멩: 엇다, 느 나말 들으라. 옛날에 느네 씨아방이 벓 홀림에 넘어간, 뵈ㅎ나 사신디 오꼳 풍랑을 만난 뵈 앞어저블고, 느네 씨아방은 시신 도 못춧인 차 영장을ㅎ여시네.

아덜 : 에에, 무사 또시 그 말을ㅎ염수과? 어머니ㅎ썰만ㅎ민 계구제구 그 말만ㅎ더라.

어멍 : 흥석이아방아! 느네 아방 죽어부난, 나 느 키우젠 흘 수 엇이 늬의 죽 은 각시로 가신디 그 집이서 즈식을 못나난 췌겨난 제우 손추먹만ㅎ 막살이에 살멍 눈물광ㅎ숨으로 늘 키왓져.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을 찾아서 코도 흥 하고 풀고 눈물을 훔친다.)

메누리 : 어머니, 그만 읍서. 어머니가 속상ㅎ영 옛날 설룬 이왓만ㅎ여가민 나 믅음도 막 아픍니다.

(어멍은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면목이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달랜다)

어멍 : 오, 알앗저만은 아방엇인 즈식이엔 ‘기여, 기여’ 옷주우멍 키우단 보 난 이제ㄱ장도 고집만 췌영 독불장군이 뵈어블어시네.

아덜 : 엇우다, 그건 어머니가 날 잘 키운 거마췌, 해해.ㅎ다 저들지 맙서, 이루후제부뵈 나가 잘ㅎ크메 양.

어멍 : 계난 무시겉 잘ㅎ켄 흙이라, 저사름? (소리 높인다) 요지금 시뵈 여

즈 말을 잘 들어서 집안이 괜안흔텐 흐는 소릴 안들엄서?

아털 : 나도 양, 홍석이어명이영 이논흐젠 흐여서마씀. 경흔디 나 말은 들어 보지도 안흐곡 기자, 이녁말만 이녁말인엔 우기난 부애 뉘싸지지 안 흐쿠가?

메누리 : 메시께, 이거보라게,,, 어느제 이녁이 나영 이논흐젠 흐어나 봄디 가? 계구제구 이녁말만 옹르텐 박박 우기는 게 이논이라? 춤말로,, 어이침가사리가 엇다. 예예, 식당을 흐엿던 술집을 흐엿던 이혼 도장을 찍어뉘 이녁 므음양 다 흡서. 돈은 무신 아무나 벌어지는 중 앓이우짜? 태운 사름이 딱로 잇주.

어멍 : (아들의 손을 잡으며 설득조로 호소한다.)

아이고, 이 노릇이여,,,홍석이 아방아, 나가 느신디 구부 스정흐마. 홍석이어멍 말참가나라도 장시 시작하기 전이 좋은 목도 보곡, 서둘지 말앙 홍석이어멍이영 이논 좋게 잘덜 여산을 헤보라.

메누리 : 예게, 게난 나가 느랑 곤는 게 그 말 아니짜?

이제 당장 흐켄 들려들지말앙 트멍내왕 요리혹원도 텅기곡 현장 징험도 흐 후제랑 이녁신디 맞는 아이템을 찾아봅센 말이우다.

기자, 흐루 아칙이 저 할락산이라도 없우와 오고정 흐염주만은 그게 어디 므음광 끝이 되어게?

(아들은 일어서서 멩구어멍 신디 손을 들어 보이며 곤는다)

아털 : 앓따가라,,, 홍석이어멍, 오늘은 어머니가 괜백흐여주난 막 기십 살아신게이? 너, 어느제 나신디 그추룩 곱게 말 곱아봤나?

곽- 곱-체대기멍 웨울르거나 헛주.

(어멍이 일어서멍 메누리도 일러 세운다)

어멍 : 느네 나말 잘 들으라. 서로찌레 이사소통이 잘뉘엿 므음속에 아쟁이가 남질 말아사주. 가정이 파분뉘어분 후제사, 돈이 억만금이 잇다흔 들 무신 소용이시크니?

아털 : 게메양. 어머니 말을 들언보난 가정이 얼메나 소중한 지 이제사 얼뉘이 알아점수다. 이제 깰장 나 생각만 흘 충 알앗주, 각시 생각은 못흐

여져신게마씀. 흥석이어멍, 나, 미안하다이.

메누리 : (얼굴에 찢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 올케로 고맙수다.

경하고, 흥석이아방 말 무시하멍 나만 옹르텐 웨울런 나도 미안하우다. 아멩 '쉐눈이 크텐 하여도 이논이 큰 텐' 하연게마는 우리찌레 이 눈족족이 하여보게 마씀.

어멍 : 기여 기여, 우리 아덜 메누리가 니 귀 반득흔 말만 하곡 막 착하덜.

휴우-, 이제사 혼 믱슴 놔점져.

이루후제라도 느넨 생심 갈라사민 아니뵤어. 만에 하나 또시 싸와지나 때나 두 갓이 똑 흥방을 쓰곡, 화해하멍 살아사주.

메누리 : 예 어머니, 우린양 무신 일이 잇어도 갈라사지 안하영 잘 살크메 하다 저들지 맙서.

아덜 : 이디 신 우리덜은 곳곳내 헤싸지지 말앙, 모다정 혼디 살아갑주양!!!

(이때 모두 손을 잡고 관람석을 보면서)

모두 : 곳곳지 들어주언 고맙수다!

와흘 본향당의 기억

반경옥

멍질은 잘들 지넵디가? 난양 와흘 한침으로 시집온 한침의 셋메누리우다.

그때만 흐여도 시집오랑보난 곱히는 집들이 합디다게. 성당을 다녀나부난 곱히는 사름들이 이해가 안뵈디다게. 시집 온 첫 해, 멩질을 흐여떡곡 정월 브름 ㄱ리에 시어멍신디 전화가 옵디다게. “셋애기 어멍아, 널 아칙이 당에 가살거난 제물출리게 이즈낙 오라이!” 당이 뵈 말산디 몰라도 짐작치기로 어디 가사홀로구나흐연 “무시거 상 같건 어수가?” 행 들어수다게. “엇다. 나 딸 착하다. 다 시난 그냥 오민 뵈다.”흐관 버스 시간 맞추아네 어가라 촌으로 가 십주마썸.

정지에 아장 생선곱곡, 콩ㄱ물 솥곡, ㄱ새기 솥곡흐여네 구들에 아장 돌레 떡 멩글곡 흐여신디 적갈만 어십디다게. 제사음식 곱은디 적갈은 엇관 “궤기 적은 올리지 않옵니까?” 흐난 안올리는 이유를 ㄱ라줍디다(이건 후제 ㄱ르 쿠다). 아! 그전이 “독새긴 무사 올림수가?” 흐난, 시어멍 곱는 소리가 몸에 두드레기 나지마랑 ㄱ 독새기 ㄱ찌 멘들락흐랜 올린댄 홉디다. — 두드레기 흐난 생각나는게 이신디, 시집장 얼마 안뵈영 온 몸에 손가락만씩 훑은 두드

레기가 피영 얼마나 근지러운지 핏독 오르게 북북 굽어가난 시어명이 통시
움이 세와냥 훑은 소곰을 나신디레 뿌리고 쉽사리(비치락)로 온 몸을 쓸어가명
무시거엔 입담을 훑디다. 경해가난 산디 흐꿈 셔가난 낮아난 기억이 남수다.

뒷날 아척 인척 일어냥 준비흔 제물을 따로따로 구덕에 싹씩 누누왕 담아
네 당으로 가는다, 브지런흔 예편 삼촌네들이 별써라 와흘본향당 제단에 진
설혀여동 아장 무당흔티 흔해 운수를 보기도 흐곡, 헤영흔 속지영 실꾸레미
를 낭에 톱아 무끄기도 흐곡, 오색천을 묶기도 흐곡들 흐명 정성들여 소원을
비는 모습들이 비치는다 시어명은 나신디 속지 주명 “찌디강 걸라.” 흐관 성
당에 다녔던 난 므음이 너미나도 심란흐곡 어떻 해사홀지 주악주악거리난,
“셋애기어명야! 흔저 낭가지에 무끄곡 곱게 절 흐여살거여.” 흐관 대망생이
가 히여뜩 하니 어지러와신디, 시어명 말쑤를 아니 들을 수도 엇곡 흐영 늑
흐는양 가심에 속지를 대엇당 빈 낭가지 츠장 묶어동 팽냥 앞이 절을 흐곡
심방앞의 아지난 심방이 쓸을 상 우터레 뿌렷다네 나신디 심져주명 “씹지마
랑 누리라.” 흐는다, 생쓸을 씹지 앓고 물도 엇이 누리젠 흐난 입안에 침을
꺾득 궤게흐영 제우사 몇 번에 걸청 냉기곤 흐여수다.

이치룩 나 흐는 양을 생각흐민 어리석고 미개흐게 느껴졌주만, 시어명 앞
의선 아닌치룩흐영 넘어나수다게. 해마다 정월보름 아싯날이민 제물을 준비
흐는다 그 때마다 적같이 안올라가는게 궁금흐연 여쭙난 와흘본당에 전해오
는 이악을 흐여줍디다.

연날 사냥흐명 사는 외다리 하르방이 저슬들영 눈이 하영오난 노리를 잡
겐 구멍이를 파고 코를 놓았젠마썸. 노리가 잡혀신가 보래가신디 노리랑 마
랑 구멍이도 코도 엇어진걸 보고 놀레언 주변을 보난, 노리영 산짐생들 스이
에 웬 젊은 도령이 셔신디 이녁이 송당 금백주의 11번째 아들 백조도령으로
사냥을 관장하는 신이엔 했덴마썸.

백조도령은 자기가 산짐승을 다스리는 신으로 마을을 지켜주켠 허난, 외다리 하르방이 서정승따님 애기가 불씨 좌정행 이시난 안뵈던 허난 도령이 그 여신에게 남편이 시넌 들었댄 흙디다. 하르방이 엇댄고르난 중매를 흡센 허영 바로 혼인을 허영 마을에 머물멍 두가시가 와흘본향당의 부부신이 뵈젠 마썸.

두가시가 스랑허멍 살단보난, 멧달 후재 서정승따님 애기가 아기사 설어 신고라 돛궤기가 먹구정 허였댄마썸. 듄삭허 돛궤기 혼점이 먹구정 허여도 부정허 음식이라 먹진 못헐거고 허여내 생각 끝에 도새기 터럭 멧 개만 뽑아당 불에 그슬린 내움샬만 맡아신디, 외방가난 백조도령이 도새기 그슬린 내움살에 부애가 낭 금기를 깨뜨렸댄 허멍 서정승따님 애기를 신격을 강등하고 내쫓아부렸댄 마썸. — 경허 이유로 이제 깃장 제단에 드새기적은 안올린댄 마썸.

팽나무 신목이 있는 신당 중앙에서 밀려난 서정승따님 애기는 동쪽 자그만 구석방 같은 제단에서 신앙인을 맞이한댄 햄신디, 경해도 와흘선 아지망들이 사냥을 관장하는 백조도령 제단 앞보단, 생업과 산육에 치병을 관장하는 서정승따님 애기씨앞더레 제물을 하영 올린댄 햄수다.

아직도 와흘 본향당에선 팽나무에 오색천을 매달고 마을의 무사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허는 전통이 전해점수다.

직산도 말곡, 눅드지도 말곡

강봉수

“살당보민 직산 안 허영 살아지카 예”, 요즘 식상 모다들영 살아도 시원치 안 혈 판에 직산허지 말양 살렌허민 말이 뉘쿠과. 나 코플레기 시절에 우리 어멍 특 허민 곤는 말이 “직산허지 말렌” 존다닐 허엿수다. 밥 먹을 때도 “직산허지 말라”, 아장 설 때도 “직산허지 말라”, 아멩 지치고 심들어도 누게신디 기대지 말양 살렌 ᄇ리치젠 허는 말산디, 할망 하르방신디 경 들으멍 살아사 신디 우리 어멍 입에 들린 말이 “직산허지 말라” 엿수다.

나도 즈식 낭 키와 보난 이 말이 무사 필요헌지를 알아지커라 마썸.

“직산허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기대지 말라는 뜻도 싶지만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라는 의미도 들어 잇수다. 경 허난 우리 어멍 곤단 말을 나도 아털신디 그냥 곤게 뉘디다.

불 칸 섬 땅 제주에서 반백년을 살아시른 이 말을 귀 곱으로 듣지 안 행산 사름 어실 거우다.

‘흐루는 집 백엿디서 날 새영 기어드난’ 우리 어멍 줌도 안 장 지들렛당 “어디 직산 혈 디가 셔냐, 나강 살주 무사 기어 들어와서” 허멍 또 존다닐 험디다.

먹을 거 입을 거 부작허던 시절에 이 말은 우리의 자존심을 키워 낸 생활어 였던 쟁각 들엄수다.

‘어디 강 생각웃이 기대지 말곡 굿장 상 살아사 현다’는 자존심을 키우는 말로 난 이때꺼정 가심에 새경 살앗수다.

경 허난 행동거지에 관한 또 다른 말이 쟁각 남수다.

“어디강 출람생이 모냥 놉드지 말렌”헌 말이 싯수다. 요 말은 주로 아방이 아덜신디 곤기도 허곡 각시가 서방신디 즈주 곤단 말이기도 허여마썸.

출람생인 어떤 경우에 쓸데웃이 잘 나상 일을 망치는 사름을 두고 곤는 말 이우다.

출람생이의 특징은 잘 놉드는데 이서마썸.

‘놉드다’는 말은 필요 이상의 행동을 허는 경우를 지칭허는 말로 잘 놉드는 사름치고 출람생이 아닌 사름이 웃십니다.

놉드당 보민 송 나게 마련이고, 그 송은 구설수 탈 수 밖에 웃수다.

“저디 출람생이 감쥌... 오닐은 어디강 놉드젠 험신고” 동네에 소문이 퍼지 문 그날부로 늦 들렁 멩기기 심들어 마썸.

영, 거느리 왕상 험 거를 멩심허렌 제주 어멍덜은 즈식덜신디 작작 웨지 안 험 수가 웃엇수다.

우리 어멍도 경 작작 웨멍도 “어디 강 출람생이 모냥 놉드진 안 헤도 야코 죽지랑 말렌” 기십도 살려 줍디다.

요새 보민 동네마다 놉드기 조앙허는 사름이 꼭 이서마썸. 무신 감투를 썼 네 허는 사름덜이 경 잘 놉다마썸. 무신 큰 베슬이나 현거 모냥 지 우터 사름 웃텐 야게기 심짱 놉다멩기는 셔농 대가리가 벨 삭은 장톡 담곡 꼴랑지 빠진 암톡 달마 마썸.

벨 웃인 독을 장톡이렌 험 수 웃고, 꼴랑지 빠진 암톡을 실현 암톡이렌 보 지 안 허는 것 모냥, 놉드지덜 맵셔양. 경허고 아멩 웃어도 아무쌍 웃이 직산 도 허지 말고양...

아멩 못살곡 심들어도
직산허명 살지맙써
직산허명 살민
동녕바치 문둥에 아장 잇고
직산허명 살당보민
이레주와 저레주와 살 질도 벨싸진다.

아는 것이 아멩 하도 놓드지 맙써
똥는 놈 웃터 놀개 들린 놈 잇나
출람생이 똥추렴에 근자랑 허당
대경이 대신 꼴랑지만 들렁간덴

분실 알앙 춤양살곡
심들어도 굿작 살당보민
사는 질에 벳들 일이 실거여

꽃자왈 영장 밋디

김선진

시방은 몬딱 잇어부렁 호여도
오름산 꽃자왈 영장 밋디 간 보난
삼촌 남시 오고생이 이성계

보름 불곡 그초록
눈, 비, 후려 부러도
저 오름산 꽃자왈 영장 밋디
곶은 팡은 벤호지 안호연
그냥 이서서

무짜로 들러쑤왕 내비러짱호여도
불란디 들랑들랑 드르 크르레
사름덜 들어 가민
사름덜 돌이 되영

자왈 속에 묻어정
나오쟁 아니호곡
이왓 혼 줄기
맹그랑 전호는 생이라

시방은 몬딱 덜 잇어부렸주마는
오름산 곱자왓 엉장 밋던
삼촌 곧던 말 오고생이 돌암성계

아기 구덕

이 지

자랑자랑 똥이 자랑
우리아기 자는 아기
놈의아기 우는 아기

할망은
아기숨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좁이 어디까지 와신지
노랫소리가 떨어진다
구덕 흥그는 손을 놓는다
우리아기 자는 아기

아기가 좁든 사이
우영에 강
유잎 혼춤, 고치 혼춤
하르방 조낙 먹을 만이

할망은 다시
구덕으로 돌아와
낮은 소리로
자랑자랑 뽐이자랑

난간에 앉은
배고픈 하르방
“외손지 괴느니 마개를 괴주”

무사 유관순이 돌멩이를 맞아야 됩니까?

김혜정

천안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상헌 서명운동이 벌어짐수다. 천안시영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양 유 열사의 3·1운동 만세시위 내용을 빼여분 고교 한 국사 교과서 즐바로 잡아도랜 요구허영 나서수다.

그 역사 현장이던 천안에선 당연한 일인지도 모름쥬. 순국일(28일)이 다가와가난 서명 열기는 더 뜨겁수다.

교과서 진보-보수 논쟁이 유 열사안티 옮겨 붙은 모양이우다. 한 보수 언론이 지난달 말 8종의 검정 교과서 중 4종에 유 열사 내용이 빠졌덴허명 시작되수다. 요 고루에 한 교순양 학술모임이서 “해방 후제 친일과가 유관순을 영웅으로 맨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부채질해수게. 그 배경으로 2009년 정모씨 논문 ‘3·1운동의 표상 유관순의 발굴’이 거느리왕상햐수다.

논문은양 유 열사가 해방 후 갑자기 추켜올라간건 친일 행적이 이신 이화여고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아보젠 일부러양 추구려세우명 시작허엿덴 고람수다. “1947년 맨들어진 기념사업회도 우익 중심으로 만들어져수다. 가이네가

지네가 잘못하여진걸 씻엉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갖젠 유관순을 좇아냈다”
는 것이우다.

틀린 말이 아납주. ‘양친이 피살된 이화여학생의 체포’로 당시 미주 교포신문에 났주만, 일제강점기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어십주. 경허민 이제꺼정 나온 유관순 전기와 영화가 밑도 끝도 어시 맹글어진 거짜. 정치허는 사름덜은 항시 역사를 이용해보젠 유관순이 필요했을 수도 이수다. 경허주만 역사적 사실은 엄연히 살아있주마썸.

3·1운동은양 식민지화되영 9년 만이 일어나수다. 1차 대전 후제 식민지 상황이 끝날거에 대한 기대가 계기가 되여수다. 종교계 지도자 33인덜이 헌 독립선언이 만세시위로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수다. 많은 사름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수다. 그사름덜은 일본 압제에서 벗어날 어떤 국가 탄생을 원해시쿠광. 봉건국가 대한제국의 부활은 아니우다. 곧바로 상하이에 ‘제국(帝國)’이 아닌 ‘대한민국(民國)’ 임시정부가 맨들어져수다.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여기 이십주.

7000여 명 동포가 살해당허고, 5만여 명이 옥에 갇히곡, 많은 사름이 고문을 당해수다. 그중이 유관순이영 가이 부모가 이서수다. 부모는 시위 현장에서 즉사해수다. 이걸 목격헌 유 열사가 헌병주재소에서 소장 떡살 잡아 흔들어수다. 삼촌 유중무(46세)는 “때려죽이겠다”며 달려들어수다. 조인원(56세)은 우통벅영 소총을 잡아수다. 이들 세 명이 시위자 중 최고형을 받아수다.

유 열산 운(運)이 좋아수다. 이화학당 은사였던 박인덕을 감옥이서 만나십주. 또 김성수(동아일보 사장, 부통령 역임)의 부인이영도 고찌 수감생활을 해수다게. 그들은 살아남양 유 열사를 추억햄수게. 미군정 경무국장 조병옥도 아우내시위를 주도한 아방(조인원)을 기리기 위해 유 열사 추모사업에 동참해수다.

영행 애국처녀 유관순은 탄생해수다. 그루후제 유 열산 재판정에 의자를 던
정 7년형을 선고받고, 옥중 투쟁 끝엔 사지가 절단뎡 무참하게 죽었젠 부풀려
져수다.

거품빼기 작업이 10여 년 간 진행돼수다. 아우내시위는 유 열사 혼자 주도
한 게 아니어십주. 16세 앳된 소녀도 아니어수다. 나이가 두 살 높여져수다. 7
년형이 아니라 1심 선고량(5년형)이 줄영 최종 3년형이 돼수다. 순국 후제 가
족한테 넘겨진 시신엔 사지 절단 상태는 아니어수다.

유 열사가 어떻 탄생허였든갑세 그는 우리한테 조상덜 뜨거운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존재우다. 돌멩일 마져야 헐 대상이 결코 아니라마썸. 전태일 열사
가 70년대 산업화의 아픈 역살 고루쳐주듯이.

제주에 몬디클릭하게 가근헌 방송허는 사름 허수경이가 곱아주는 이야기는?

양 필 수

제주관광공사에서 소뭇 유명허덴 현 사름 모셔당 환대 서비스 강연햐썸썸다! 8월 25일날 조냐 7시 30분에 예! KCTV 공개홀에서 마썸!

소뭇 유명허덴 현 방송허는 사름 허수경이 심상허고 데싸지도록 들릭퀴는 입담으로 촛말로 말만 들어도 지꺼지는 제주에서의 사는 자미를 곱아준덴 햐썸썸다. 8월 25일 조냐 일곱시 반부터 KCTV 제주방송국 공개홀에서 허염땀 햐썸썸다!

주최허는 디가 제주도허고 재단법인 한국방문위원회엔 햐고 예,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햐땀예! 이번이 두 번째 허는 건디 “제주도에 살고 이신 소뭇 유명허덴 현 사름덜 모셔당 허는 환대서비스 강연”이엔 햐썸썸다!

이번에 예, 허수경선상님의 강연은 전번 돌에 가수 장필순선상님에 이영 두 번째고 예, 제주더레 이사행 왕 사는 문화예술인덜허고 예, 방송인덜로부터 제주가 지꺼지게 내세울 것덜은 뭐가 이싱고허는 것덜을 곱아준덴허난 예, 강 방 잘 들어봐사 허쿠다. 요것덜로 행 우리 제주사름들은 무신 모심을 곱고, 어떻허민 또시 오고정 허는 제주를 멩글 수 이신지 곱치덜 생각햐보젠 초려났덴 햐싱게 마썸!

허수경 선생님은 한양에서 막 유명해나신디 예! 좋지 안 현 일월이 좀 이서 난 모양이라마썸! 경허난 2005년부터 예! 제주시 조천읍에 이사 왕 살암썸다. MBC 공채 MC 1기로 일허기 시작헌 후 ‘도전! 추리특급’, ‘정오의 희망곡 허수경이우다’ 등 막 하영 텔레비전허곡 라디오에서 진행을 해 왔덴 예!

작년엔 예! 제주에서 이녁이 살고이신 것덜을 글로 쫓나게 써 신디 책 이름이 『무사 살암싱고, 제주도에』엔 햄썸다. 성안고치 너르닥헌 동네에서는 알지 못허는 사계절의 곱닥힘, 새에 춤이 슴빱허게 땡그는 제주음식들! 아이덜하고 고치 버래기 걷기 조은 비밀의 갯갯 등 여행 온 사름덜은 더 골 것도 없고 제주에서 살젠 허는 사름덜 헌터 가이드 역할을 자처허고 이시맨 마썸!

허수경선상님은 이날 강연을 허명 예, 제주도에 살고이신 것을 박박 우기는 이유허고 예, 제주의 춤매력에 심토맥이 있게 예, 이야기를 헐꺼렌 마썸!

강연은 예,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공짜로 다 들을 수 있덴 예. 듣고정허른 자리가 매기독닥되기 전에 돌음박질허듯 서들렁 전화해야 된된예! 공일 말고 평일 아침 9시부터 조냐 6시까지만 전화반암썸허고 예! 200명 채워지민 더 안받은덴 예! 혼저 해사 허쿠다!

강연은 예, KCTV 제주방송에서 텔레비전에 나온덴 예. 혼자 찍어나뵈당 냉중 내치는 녹화방송으로 방송헌덴 허는디 예!, 방송이름은 제주에 살어리랏다엔 햄썸다. 경헌디 방송허는 날은 아직 정해지지 안허연 마썸!

제주관광공사에 최갑열이랜 현 사장은 “보물섬 제주의 매력을 우리 제주도에 살고이신 소뭇 유명한 사름들의 강연을 계속허영 관광업에서 일허는 사름들광 제주도 사름들이 모심대로 고치허는 친절 환대 서비스를 쭉 행 나감 썸마썸!이엔 골명 예, 또시 오고정 허는 제주도를 땡글젠허민 제주사름들이 높덜이 금착힐 정도로 나서명 도와줘야헌덴 허맨마썸!

들어보고정허는 거 이싱거랑 강의 듣고정 허는 사름들은 제주관광공사 경쟁력강화처엔 헌디 전화번호가 064-740-6925번으로 걸어보민 된된 예! 지금꺼정 고맙썸다! 제이누리에 김경미였썸다.

“대한항공 운임 올리는 호설 싹 항공도 문딱 다”

현 승 도

대한항공이 국내선 항공 운임을 올리는 아시아나항공도 고찌, 호설 혈현 항공사꼬지도 올리는디 혼디덜 했젠 햄신게마씀.

호설 혈현 항공사 국내선은 제주에 거의 오는 건디, 요번에 항공료 올리믄 1천만 관광객이 오는딘 버~얼정현 신호가 들어오는 거주마씀... 틀렸젠 허는 겁쥬!

제주도허고 제주도의회에선 어떻덜 혈 건고예~

호설 혈현 에어부산이 다음달 초호루부터 국내선운임을 올린댄 11일 골았젠 험디다.

업계 1위 대한항공허고 아시아나항공이 고찌 올린, 바로 후재 올린 겁쥬.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선 운임을 다다닥 올릴거랜 생각해신디 경 된겁쥬. 안

될 리가 이수과계..

에어부산은 다음달 초호루부터 국내선(부산~김포, 부산~제주, 김포~제주) 공시운임을 평균 9.7% 올리겐 했젠 골아수다.

경 허난 에어부산의 국내선 운임은 주말(금~일) 평균 9.4%, 주중(월~목) 평균 10.4%, 성수기 평균 9.1%가 오르고예!!.. 경허난 최소 4천800원에서 최대 9천700원이 요금이 오르게 되는 겁주.

경 해도(9월1일) 이달말까지 비행기표 사민 올르기 전 요금으로 해주켄 햄신게마씀.

에어부산 측에선 회사 만들영 지금까지 막 어려와부난 어쩔수 엇젠, 막 지름값도 올르고, 다른 것들도 막 올라부난..... 경해도 올리는 건 성수기 지낭 올리겐 골읍디다.

업계에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올리난 에어부산에서도 막 잘되신게 허멍 고찌 올린거랜 허는 겁주마씀.

호쓸 헐허게 털 허는 항공사 중 이스타항공도 넘은 달 3일 할증과 성수기 운임 등에서 7% 수준으로 올려부난 막 큰 항공사들허고 거의 고타져 부럼수다. 차이 어서마씀.

호쓸 헐허댄 해나신디 그것이 그거우다.

에어부산도 혼디들영 허여가난 호쓸 헐헌 항공사들 문짝 올릴거랜 골아도 헐 말이 엇인 겁주.

올리켄 허는 금지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똑 고트난 이견 괜짜그네 허는 거랜덜 골암수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달 18일부터 국내선 운임(일반석 기준)을 지금까지 받은 금지보다 주중(월~목) 평균 6%, 주말(금~일) 평균 12%, 주말할증·성수기 평균 15% 등 전체 평균 9.9% 올린 겁니다.

경허난 김포-제주 노선 존존헌 좌석은(일반석)은 기존 7만3400원(주중 기준)에서 8만2000원으로 올랐고예, 진진하고 큰(프레스티지석)좌석은 기존 11만3400원에서 14만2000원으로 올린 거마씀.

아시아나 항공도 이달 3일부터 국내선운임을 대한항공과 꼭 고튼 9.9% 올려십디다.

경허난 사람 이실 때 엇일 때 차이를 텅 할인운임(월~목)은 평균 6%, 기본 운임(금~일)은 평균 12%, 성수기 및 탄력할증운임은 평균 15%씩 각각 올린 거마씀.

멧 프로 멧 프로 말고 요금으로 골으민 주중 요금은 7만34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주말요금은 8만44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주말할증요금은 9만2900원에서 10만7000원까지 쪽~ 올란마씀.

걸음 제주도 혼바퀴를... '제주 올레 잇으멍 걷기'

오 순 선

몇해 전이 만들어진 제주 올레. 허당보난 제주도를 혼바퀴 도는 제주올레가 다 땡글어져수다.

그 올레를 호루에 혼 받디씩 걸어보는건 어땡허코예?

(사)제주올레가 내달 초 나흘부텀 9월 보름꺼정 잘 땡글어진 올레를 축하허젠 '제주 올레 이스멍 걷기행사'를 열엄수다.

제주올레양 지난 2007년 9월 8일 제1코스를 맨든후제 지난 5월 27일 20코스까지 다행 20코스를 맨들영 알려와수다.

경행 오는 9월 15일엔 21코스를 만들민 제주도가 혼바퀴 이어점댄마썩.

경헌디 올레맨들멍 덤으로 맨든디덜은 이성걷기가 어려웁 따시 걷는 시간을 또로 마련헐거랜햄수다.

다음달 4일엔 소섬(1-1코스)부터 시작하여 매주 반공일(11일 가파도(10-1코스), 18일 추자도(18-1코스)에 미릿에 걸엄수다.

제주올렌 이번 행사 준비허젠허난 “제주올레 이슴단”에 들어왕 애쓸사람 들을 27일까지 모암시난 하영들 놀래 읍서양.

이슴단사람들이 헐 일은양 제주올레코스 깃발 들영 걸을거우다.

각 코스별로 7명만 모집허염시난 제게제게 신청헝씨예.

이슴단은 지가 맡은 코스를 끝까지 가야허곡, 다른 코스에도 끝이 참여헝 수 이수다.

또시 제주올레에서 친구기업이서 회사허는 위에 옷이영, 패랭이, 썸크림, 간식, 음료수도 제공해 준덴마썸.

서명숙이사장은 “제주올렌 지역민과 자원봉사자, 올레꾼, 친구기업덜등 길을 사랑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힘을 보탱 오늘꺼정 와시난 제주해밴이 를 이스는 정규코스를 다 맨든 기쁨을 모든 사람들광 끝이 나누구정허영 이 번 행사를 맨들어수다” 허명 “이번 행사로 모두 끝이 이어가는 제주올레 길 의 정신을 또시 혼번 더 같이허는 시간이 되시민 조쿠다”랜 고람수다.

하영들 놀래오곡 이슴단도 혼저 제게 서듭서예.

“밤에 고기 내 그득은 레포츠공원... 아침에는 쓰레기 내 풀풀”

오 현 수

제주시 용담2동 바닷길옆이 레포츠공원..어떻 거긴 여름이민 잠도 안장 하
영들 가는곳 이수다.

도심 떠냥 바당 조꼬띠..이시난..괘기도 구웁 먹으멍 더위식히젠..사람들
하영 모여 이수다.

운동도 혈수 있고 운동 경기도 허젠 소나이들이랑 비바리들이 하영 초자왓
수다.

근디..이글레 레포츠 공원은 생각어신 피서객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덴 햄
수다. 이제들영 행정당국은 취사행위를 허지말렌 조사중이랜 햄수다.

이제왕 허지 말렌 허민 안될꺼 닥망 관리부서가 고심에 빠졌덴 햄수다.

레포츠공원을 관리허는 용담2동에 따르민 레포츠공원에서 생기는 쓰
레기덜은 평상시에는 300~400kg정도나온덴 햄수다. 근디 여름만 되민
700~800kg, 주말인 1.5t의 생활쓰레기덜을 그대로 놔둔덴 햄수다

음식물찌꺼기에 술병, 일회용기 등 심지어 휴대용 부탄가스까지 치우지도 안행 그대로 가버린덴 허고 주말이는 호꼼더 심해정 클린하우스가 조꼬디 이서도 분리배출은 커녕 조꼬디 가따 놓치도 안는덴 햄수다

용담 2동 공무원허고 자생단체에서 매날 밤 계도에 나서고 기초질서 지키기 현수막을 내걸엉 쓰레기를 치울 것은 유도는 햄신디 그때뿐이고 아침인 공공근로요원허고 자생단체에서 쓰레기를 치우젠 욱본덴햄수다

상황이 이렇게 되부난 김상오 제주시장은 레포츠공원에서 취사행위를 문딱 금지허는 방안을 검토허라고 지시해수다

근디 이러한 방안도 쉽지 안행 용담 2동은 고민에 빠졌덴 햄수다

용담2동은 작년부터 취사를 문딱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허지만 호썰 결론을 내지 못했덴 햄수다. 레포츠공원에서 취사를 금지해 불민 놀래온 사람들이 조꼬띠로 읍기민 무질서가 판을 칠 것같앙 경도 못하고 있덴 햄수다

레포츠공원 조꼬딘 호꼼한 공원과 바당 곳곳이 안장 설띠도 있고예

근디 레포츠공원의 취사를 금지해불민 이런 디로 놀래온사람들이 읍경 취사행위를 허고 쓰레기를 아무디나 버릴 것을 용담 2동은 생각하고 있덴햄수다. 현재 레포츠공원의 무질서 행위보다 더욱이 무질서가 판을 칠 것은 불보듯 뻔허덴 생각 했수다.

지난 3일 용담 2동은 자생단체허고 회의를 해신디 딱히 결론을 못냈덴 햄꼬예.

용담 2동 이정훈 동장은 취사금지 방안도 생각은 해바신디 생각 어신 행동들은 바당 질 옆더레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명 자생단체도 이러한 점 때문이 딱히 방안을 잡지 못행 영도 안되고 정도 안되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고람수다예.